

목 차

영역	순	제 목	Page
인문	1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1
	2	비폭력 대화	2-3
	3	설득의 심리학1	4
	4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	5
	5	Why Jesus	6
	6	지성에서 영성으로	7
	7	인생수업	8
	8	역사란 무엇인가	9
	9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10
	10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	11
	11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12
	12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13
	13	한국 고대사 산책	14-15
	14	논어	16
	15	사기열전	17-18
	16	역사론	19
	17	고대문명교류사	20
	18	세속의 철학자들	21
	19	학문의 즐거움	22-23
	20	사랑의 기술	24
	21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25
	22	내 마음을 읽는 시간	26-27
	23	생각에 관한 생각	28
	24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29-30
	25	기브앤테이크	31
사회	26	소비의 사회	32-33
	27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34
	28	오래된 미래	35
	29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36
	30	노동의 종말	37
	31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38
	32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39
	33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40
	34	에밀	41

영역	순	제 목	Page
사회	35	교육의 목적과 난점	42
	3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43-44
	37	어머니의 탄생	45-46
	38	미디어의 이해	47
	39	시민의 불복종	48
	4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49
	41	정치 질서의 기원	50
	42	당신들의 대한민국 1,2	51
	43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52-53
	44	오리엔탈리즘	54
	45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55
	46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56
	47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57
	48	작은 것이 아름답다	58-59
	49	경제학 콘서트 1	60
	50	공유의 비극을 넘어	61-62
과학/ 기술	51	세계를 바꾼 20가지 공학기술	63
	52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	64-65
	53	과학혁명의 구조	66
	54	(꼭 한번은 읽어야 할)생물학 이야기	67-68
	55	제대로 노는 물리법칙	69
	56	과학자의 관찰노트	70
	57	다윈 지능	71-72
	58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	73-74
	59	수학 시트콤: 발칙한 상상으로 가득한 17가지 수학	75
	60	총, 균, 쇠	76-77
	61	코스모스	78-79
	62	침묵의 봄	80-81
	63	사피엔스	82-83
	64	식물의 역사	84
	65	수학의 확실성	85

영역	순	제 목	Page
과학/ 기술	66	시간의 역사	86
	67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87-88
	68	객관성의 칼날	89
	69	뇌로부터의 자유	90-91
	70	이기적인 유전자	92-93
	71	왜 로봇의 도덕인가	94
	72	골렘: 과학의 뒷골목	95
	73	생명의 느낌	96-97
	74	계놈	98-99
	75	엔트로피	100
문학/ 예술	76	1984	101
	77	연어	102
	78	섬진강	103
	79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04
	80	죄와 벌	105
	81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06
	82	광장	107
	83	토지	108-109
	84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110
	85	위대한 개츠비	111
	86	백 년 동안의 고독	112-113
	87	주홍글씨	114-115
	88	멋진 신세계	116
	89	예술이란 무엇인가	117-118
	90	뮤지코필리아: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	119-120
	91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	121-122
	92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123-124
	93	서양미술사	125-126
	94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127-128
	95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129-130
96	한국 미술의 역사	131-132	
97	한눈에 보는 조각사	133	
98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34-135	
99	대중음악의 이해	136-137	
100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138	

[1]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 저자소개

이태석: 살레시오회 수도 사제이자 의사로 아프리카 남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그곳 주민들과 함께 지내다 건강 악화로 2010년 1월 1일 선종하였다.

■ 줄거리

이태석 신부는 약 8년의 시간을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에서 보내면서 사랑을 전하는 신부님으로, 병원을 세워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다. 또는 가난한 수단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가난한 나환자들과도 직접 만나 신을 신겨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통해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수단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은 도대체가 경제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인건비가 적은 곳엔 물가가 싸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곳은 인건비는 다른 곳의 십 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물가는 선진국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비싸니 도대체가 도깨비 시장이다.”(p. 166)

■ 추천의 글

대학시절 또는 졸업 후에라도 해외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상 다녀오면 좋겠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실천하는 보편적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봉사를 나간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나가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하길 바란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단순한 기쁨, 아베 피에르, 마음산책, 2001.

[2] 비폭력 대화

■ 저자소개

마셜 로젠버그:국제 평화단체인 비폭력대화센터(CNVC)의 설립자이자 교육 책임자. 1934년 미국 오하이오 주 캔턴에서 태어나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으며, 1961년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학교 통합 프로젝트에서 중재와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비폭력대화(NVC) 교육을 시작했다. 그가 1984년 설립한 CNVC는 지금까지 400여 명의 국제인증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교육자, 의료 분야 종사자, 기업 관리자, 변호사, 군인, 수감자, 교정 당국, 경찰, 성직자, 정부 관리, 그리고 수많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NVC의 실천을 지원하는 활동하는 벌였다.

■ 줄거리

저자 마셜 로젠버그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라는 격언(아니면 경고)를 예민하게 깊이 의식했다. 초판 머리말을 쓴 아룬 간디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다. 마셜은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언어와 대화 방식’을 고안하여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고 이름 붙였다.

이 책은 비폭력대화(NVC)의 기본 개념, NVC 모델, 모델 적용 과정 등을 자세하게 다루는 기본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이론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는 NVC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천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장점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다. 책에 제시된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라. 갈등이 누그러지고 유대가 자라나는 것을 실감하게 될 터이다. 2004년 출간된 이래 지금도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독자가 꾸준히 이 책을 찾는 것도, 인간관계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 비폭력대화의 그런 힘 때문일 것이다.

■ 추천의 글

비폭력대화(NVC)의 기본 개념, NVC 모델, 모델 적용 과정 등을 자세히 다루는 기본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이론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는 NVC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천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장점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다.

책에 제시된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라. 갈등이 누그러지고 유대가 자라나는 것을 실감하게 될 터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디팩 초프라의 머리말과 제11장 '갈등 해결과 중재'를 추가하고 잘 읽히도록 문장을 손뚫으로써 실용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출처: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2018.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3] 설득의 심리학1

■ 저자소개

로버트 치알디니 :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심리마케팅학과 석좌교수로,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다. 사회심리학에서도 설득과 순응, 협상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난 그는 '설득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그의 연구를 두고 "오늘날 비즈니스 의제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와 공헌을 인정받아 2003년 도널드 T. 캠벨상을 수상했고, 2018년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19년 미국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정회원이 되었다. 이외 저서로 『웃는 얼굴로 구워삶는 기술』, 『초전 설득』, 『설득의 기술』 등이 있다.

■ 줄거리

이 책은 6가지 설득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원칙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설득의 달인들이 상대방에게 구매나 기부, 허락, 투표, 동의 등을 요청할 때 그 원칙들을 능숙하게 적용해 엄청난 힘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 각 원칙이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 즉 뭔가 깊이 사고해보기 전에 먼저 '네'라고 응답하게 만드는 능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 추천의 글

만약 당신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로버트 치알디니야말로 최고의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톰 피터스 (미국 최고의 경영학자 《초우량 기업의 조건》, 《미래를 경영하라》의 저자)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설득의 심리학] 시리즈.

[4]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 저자소개

김용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인류 보편적 주제에 관심이 많은 철학자로 전문가들과의 논담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어려운 철학적 용어보다는 생동하는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서로는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설득의 논리학》, 《영화관 옆 철학카페》 등이 있다.

■ 줄거리

인간의 삶에서 '신'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신이 문화의 일부인 종교에만 머무른다면 종교적 관점에서 신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신은 종교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사유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신을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문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서양문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그 문명에 스며들어 있는 '신'이라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 이 책은 다음 5개의 부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부 신이란 무엇인가, 2부 신은 존재다, 3부 신은 창조주다, 4부 신은 인격적이다, 5부 신은 유일자다. 각 장에서는 신의 모습과 존재, 창조의 목적과 방식, 신의 인격성, 삼위일체의 이해, 유일신의 배타성 이해를 위해 78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도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라는 주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이 인간을 오직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끈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 어차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강제하려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신의 인격성과 섭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로 서로 부딪치지요." (p. 560)

■ 추천의 글

이와 같이 우리가 신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었거나 아니면 그냥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신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동안 서양문명을 이어온 신의 이야기를 합리적이고 쉬운 용어로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신의 위대한 질문, 배철현, 21세기북스, 2015

[5] Why Jesus (왜 예수인가)

■ 저자소개

조정민: 25년 동안 MBC 사회부·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언론인의 삶을 살았다. 47살에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고든콘웰신학교 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마쳤고, 보스턴 온누리교회 전도사, 온누리교회 목사, CGNTV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현재 베이직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 줄거리

기독교는 예수와 예수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저자는 베이직 교회를 섬기면서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수요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책은 그 수요 강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서두에 밝히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12가지 키워드로 이 책을 풀어내고 있다. 12가지 키워드는 종교 이상(Meta religion), 노 마일리지(No mileage), 자유, 기쁨, 사랑과 권력, 죄, 은혜, 고난, 거듭남, 제자, 십자가, 부활이다.

■ 추천의 글

저자의 독특한 이력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을 기독교 안과 밖의 시각에서 균형있고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쉽게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Why Salvation(왜 구원인가?), 조정민, 두란노, 2015

[6] 지성에서 영성으로

■ 저자소개

이어령: 1934년 생으로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운다. 현대평론가협회 활동을 하였고,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강단섰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을 기획하고, 1990년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수많은 평론을 하고 소설과 희곡, 에세이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저서로 <<디지로그>>,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이 있다.

■ 줄거리

이어령씨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신론자로서 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를 통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며 변화되어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세계를 인정하면서 겪게 되는 고뇌와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어 깨닫게 되는 것의 차이를 그만의 아름다운 수사학적 표현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이 책은 제1부 교토에서 찾다, 제2부 하와이에서 만나다, 제3부 한국에서 행하다, 제4부 아버지와 딸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인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생각의 상자나 지식의 상자에서 해방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지성을 거부하는 반지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감히 지성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요. (중략) 그런데도 확실한 것은 책에 의존해온 저의 지식에 대한 파우스트적 회의가 드는 것이지요. (중략) 그런데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p. 141)

■ 추천의 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물리적 세계와 이성적 세계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영적 세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의 질서가 다른 어떤 세계의 질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열림원, 2016

[7] 인생수업

■ 저자소개

법륜: 법륜 스님은 1988년 '정토회'를 설립한 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2002년 아이사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 <<방향해도 괜찮아>> 등이 있다.

■ 줄거리

이 책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나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통찰하고 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국한되어 서술하기보다는 에세이와 같이 일상의 용어로 풀어내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그러나 아픔의 상처로 남는 일들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관찰하고 수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1장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2장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3장 사흘 슬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4장 아픈 인연의 매듭을 풀다, 5장 인생 후반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 6장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로 구성되어 있다.

■ 추천의 글

대학생은 인생의 초년기이지만 중년과 노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비록 그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중년과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헤쳐 나오는 동안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삶의 혜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그러한 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나무의마음, 2016

[8] 역사란 무엇인가

■ 저자소개

E. H. 카(Edward Hallett Carr): 카는 1892년 런던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외무부에서 약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웨일스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강의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 <<20년간의 위기, 1919~1939>>, <<평화의 조건>>, <<소련사>> 등이 있다.

■ 줄거리

이 책은 저자인 카가 1961년 케임브리지 대학 강단에서 강연한 것을 묶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2장 사회와 개인, 3장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5장 진보로서의 역사, 6장 지평선의 확대.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므로, 이 상호작용은 또한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은 소유하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다.”(p. 166)

■ 추천의 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방법은 역사가들의 역사적 해석을 거친 문헌들을 읽는 것이다. 어떤 역사가의 문헌을 읽는지에 따라 우리의 역사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사가의 사관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양한 사관들에 따른 해석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필요가 있다. 이는 타인의 역사적 해석에 대해 주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사 공부의 기초, 피터 N. 스텐스, 삼천리, 2015.

[9]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 저자소개

최용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와 월간 『사회평론 길』의 기자로 생활하다가 더난출판사에서 기획팀장을 지냈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고려사>>, <<13인의 인물-역사인물 가상인터뷰>> 등이 있다.

■ 줄거리

이 책은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사건들은 사건 하나로서만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통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선사문화와 고대국가 건설: 고조선의 성립과 삼국시대의 전개, 2장 통일신라와 발해: 삼국통일을 거쳐 남북국시대로, 3장 고려시대: 후삼국 통일에서 위화도 회군까지, 4장 조선시대: 근세의 태평시대를 거쳐 민중반란까지, 5장 근대의 전개와 현대사회의 성립: 제국주의 침략에서 민주국가 수립까지.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 때문에 넬슨보다 이순신이 위대하다고 보았을까? 그것은 넬슨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던 반면, 이순신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p. 220)

■ 추천의 글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공부한 방법은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의 암기였다. 그러나 역사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결과이다. 그러한 인과적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근현대편, 최용범, 이우형, 페이퍼로드, 2012.

[10]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 저자소개

정민: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우리나라 고전문화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책벌레와 메모광》, 《고전 독서법》, «비슷한 것은 가짜다» 등이 있다.

■ 줄거리

지금까지 다산 선생에 대한 인간적인 면과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다산 선생님은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고 정리하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산이 어떻게 그러한 방대하고 위대한 작업을 해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지식 경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1강 단계별로 학습하라, 2강 정보를 조직하라, 3강 메모하고 따져보라 4강 토론하고 논쟁하라, 5강 설득력을 강화하라, 6강 적용하고 실천하라 7강 권위를 딛고 서라, 8강 과정을 단축하라, 9강 정취를 깃들여라, 10강 핵심가치를 잊지 말라.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둘 사이의 토론이 원활치 않거나 좀 더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다산은 제3자를 개입시켜 다면토론을 펼쳤다.”(p. 210)

■ 추천의 글

다산이 붓을 들고 메모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메모할 것이고, 다산이 정보를 얻기 위해 수백리의 발품을 팔았다면, 우리는 단 몇 초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대가없이 얻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우리의 도구는 다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지만, 그 정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은 다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 읽어야 할 책도 많고, 강의를 위해, 과제를 위해 찾아야 할 논문이나 자료들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직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둔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될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강의, 신영복, 돌베개, 2004.

[11]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 저자소개

티나 실리그: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로 스탠퍼드 테크놀로지 벤처스 프로그램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 줄거리

이 책은 저자가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이라는 강의의 내용을 자신의 아들이 스무살이 된 것을 기념하며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20대의 청춘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엉뚱해도 괜찮으니 새로운 것, 자신이 원하는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이 때로는 기존의 규칙을 깨는 일탈이어도 좋다고 말한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스탠퍼드 대학의 5달러 프로젝트. 2장 거꾸로 뒤집은 서커스. 3장 비키니 아니면 죽음을 달라. (중략) 10장 불확실한 세상으로의 행복한 초대.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상의 실패-최선을 다하지 않음: 대학에 들어가 처음 2년간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p. 108)

■ 추천의 글

이 책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무언가를 해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훗날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학시절 책을 통해, 학문을 통해, 학교활동을 통해 가급적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2012.

[12]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 작가소개

- 1) 레슬리 스티븐슨(Leslie Stevenson) :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University of St. Andrews) 철학 담당 명예교수
- 2) 데이비드 L. 헤이버먼(David L. Haberman) : 인디애나 대학 블루밍턴 캠퍼스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의 종교학 담당 교수

■ 줄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철학 개론서. 1974년 초판 발행 이후 30년 넘게 동양 및 서양사상 분야에 있어 탁월하면서도 쉬운 개론서로 명성을 얻어왔던 『인간에 관한 일곱 가지 이론』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발행된 제4판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여러 문제와 중요한 의문들을 개방적인 탐구 정신에 입각하여, 10가지 이론으로 간결하게 해설하고 있다. 제4판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추가하여 모두 10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사상가 위주로 내용을 선별하였다. 단순히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데 그쳤던 이전 판본과는 달리, 10가지 이론들을 종합하여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유교, 힌두교, 성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마르크스, 프로이트, 사르트르, 다윈주의 이론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을 인접 학문들과 연관지어 소개한다. 또한 신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에서 주요 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비추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들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성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인간의 진짜 본성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철학 VS 철학. 강신주 저. 그린비. 2010.

[13] 한국 고대사 산책

■ 저자소개

한국역사연구회: 과학적·실천적 역사학의 수립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 창립되어 현재 한국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1989년부터 회지 《역사와 현실》을 연 2회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사강의》(1989), 《한국역사》(1992), 《한국역사입문》(전 3권, 1995) 등 한국사 개설서와 《조선정치사 1800~1863》(전 2권, 1990), 《한국현대사》(전 4권, 1991) 등 전문연구서를 출간했다. 대중용 역사서로는 《문답으로 엮은 한국 고대사 산책》(1994),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전 2권, 1996) 등을 출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사》(전 2권, 2015), 《한국근대사》(전 2권, 2016), 《한국고대사》(전 2권), 《고려시대사》(전 2권, 2017), 《한국현대사》(전 2권, 2018) 등 '시대사총서'를 완간했다.

■ 줄거리

이 책은 저자인 카가 1961년 케임브리지 대학 강단에서 강연한 것을 묶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역이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2장 사회와 개인, 3장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5장 진보로서의 역사, 6장 지평선의 확대.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므로, 이 상호작용은 또한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은 소유하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다.”(p. 166)

■ 추천의 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그 뜨거운 이유는 전혀 유쾌하지 않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몰아세우는 웃지 못할 일이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전한 관심이 아니라, 폭력적 광신(狂信)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고대사 전문가들이 모였다. 역사에 관심은 있으나

전문적 내공이 약한 일반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꾸몄다. 구성도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쟁점이 되거나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깔끔하게 설명하였다. 검증받지 못한 사이버 역사서가 서점에 넘치는 요즘, 이 책의 신뢰성과 수월성(秀越性)은 단연 두드러진다.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번 휴가철에 독파할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사 공부의 기초, 피터 N. 스텐스, 삼천리, 2015.

[14] 논어

■ 저자소개

공자: B.C 551년 노나라 추읍(譚邑 : 지금의 산둥성 곡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인(仁)과 예(禮)의 실현을 통한 도덕적 이상사회를 꿈꾸었으며, 춘추시대의 불안한 사회질서를 주나라의 문화와 제도의 회복을 통해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끝내 실현하지 못하고 B.C 479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논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줄거리

동양고전 슬기바다 <논어> 개정판.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사는 이치나 교육.문화.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과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접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인간 삶의 근본을 아우르는 이치를 다루고 있는 고전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사는 이치나 교육.문화.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과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논어』가 되었다고 한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토론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누구나 접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인간 삶의 근본을 아우르는 이치를 다루고 있어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양철학을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양서 중의 양서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맹자, 홍익출판사, 2005.

[15] 사기열전

■ 저자소개

사마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9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子)는 자장(子長)이며 섬서성 용문(龍門) 출신으로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은 한 무제 때 태사령(太史令)이었다. 열 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도인 장안(長安)에 와서 동중서(董仲舒)와 공안국(孔安國)에게 학문을 배웠다. 20세 때 여행을 시작하여 중국 전역을 두루 돌아다녔으며 돌아온 후에는 낭중(郎中)에 올랐다.

기원전 99년 이릉(李陵)이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사마천은 홀로 무제 앞에 나아가 이릉을 변호하다가 무제의 노여움을 샀다. 옥에 갇힌 그에게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고를 권리가 주어졌다. 첫째 법에 따라 주살될 것, 둘째 돈 50만 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것, 셋째 궁형을 감수할 것이었다. 사마천은 두 번째 방법을 취하고 싶어 했으나 귀족이 아니었던 그가 그런 거액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마지막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기원전 93년 사마천은 마침내 다시 무제의 곁에 있게 되었다. 이때는 『사기』의 집필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지 대략 20년 만이었다.

■ 줄거리

<사기열전>에서 현대인들이 읽어볼 만한 부분만을 가려 뽑아 번역했다. 이 책에서 제외된 내용은 대부분 한나라 건국 후에 활동한 여러 관리와 유학자, 그리고 한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이민족과 관련한 것으로, 오늘날의 우리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 많다. 따라서 이 책만으로도 <사기 열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편 당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유물 자료와 지도 등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 편의 처음에는 해당 시기를 표기해 두어 독자로 하여금 시대적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에 대해서는 별면에서 따로 상세히 다룸으로써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했다.

"당신이 말하는 성인은 이미 뼈까지 다 썩어 지금은 그 말만 남아 있을 뿐이오."

군자란 때를 만나면 수레를 타는 몸이 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밭을 떠도는 몸이 되오. '훌륭한 장사치는 물건을 숨겨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덕을 지니고서도 겉모습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당신의 그 교만과 욕심, 방자함과 지나친 마음은 모두 버려야 하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 것이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오”(p. 30)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새로운 고전읽기를 시도하는 <서해클래식> 제6권. 이 책에서는 중국 한나라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기전체로 쓴 최초의 역사서 『사기열전』을 살펴본다. 사마천은 사실감의 표현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었으며, 역사서를 살아 있는 기록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을 대화체로 재현하였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서해문집, 2007.

[16] 역사론

■ 저자소개

에릭 홉스봄: 1917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독일과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었으며, 일본 아카데미의 외국인 회원이기도 했던 그는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퇴임할 때까지 런던 대학교 버크벡 칼리지에서 그후에는 뉴욕의 신사회연구원에서 강의했다.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그리고 「극단의 시대」 외에도, 그의 저서들로는 「밴디트 : 의적의 역사」 「혁명가 : 역사의 전복자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자신의 회고록인 「미완의 시대」 「세계화, 민주주의, 테러리즘」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있다. 홉스봄은 2012년에 타계했다.

■ 줄거리

<역사론>의 각 글들은 사회사, 경제사, 역사 이론, 아래로부터의 역사, 미시사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3장은 '역사의 재료로 쓰이는 역사(학)'와 그에 대한 '역사가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장 '앞을 내다본다-역사와 미래'에서는 그동안 역사 이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역사적 예측을 다루고 있다. 또한 18장과 19장에서는 현재의 관점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려진 제공]

■ 추천의 글

홉스봄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일뿐 아니라, 그 과거의 힘을 빌려 만들어가는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쉬르의 마지막 강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 민음사, 2017.

[17] 고대문명교류사

■ 저자소개

정주일: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고급중학교와 북경대 동방학부를 졸업했다. 카이로 대학 인문학부를 중국의 국비연구생으로 수학했고 중국 외교부 및 모로코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평양국제관계대학 및 평양외국어대학 동방학부 교수를 지내고, 튀니지 대학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말레이 대학 이슬람아카데미 교수로 있었다.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대학 사학과 교수로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하고 2000년 출소했다. 2018년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세계실�크로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명교류학 연구자로서 학술답사와 강의·연구에 전념하는 한편 중형 세계일주를 수행했다.

■ 줄거리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창조자들로부터 그리스와 로마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이슬람제국, 선진시대 중국과 몽골제국, 석가 시대의 인도와 티무르제국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들의 흥망과 중앙아시아 여러나라등의 출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 사변들은 예외없이 실�크로드를 따라 전개되었고, 또 이길에 의해 서로 연관됨으로써 비로소 모든 변화가 가능하였다. 다리우스, 알렉산더, 한 무제, 당 태종, 이슬람 할리파들, 칭기스칸, 티무르 등 세계적 영웅호걸들이 이 길을 주름잡고 다니며 역사의 지휘봉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 길이 없었던들 세계사의 전개는 인류가 경험한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추천의 글

이번에 같이 출간된 『실�크로드학』이 총론이라면 이 책 『고대문명교류사』는 기원전에서부터 5-6세기까지의 문명교류사를 되짚은 각론이다. '교류를 떠난 문명은 생존할 수 없다. 문명교류사 연구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저자는 시종 일관 '충돌'이 아닌 '교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민음사, 2004.

[18] 세속의 철학자들

■ 저자소개

로버트 하일브로너: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세속의 철학자들>이 출판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지도교수들이 학위수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10년이 지난 후인 1963년에야 논문 「경제사회의 형성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해 뉴스쿨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30년 후 퇴직할 때까지 교수직을 유지했으며, 1971년에는 미국 경제학회 집행이사과 부회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2005년 1월 4일 85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일브로너는 학자로서 많은 명예를 누렸고, 사상 최고의 경제학 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늘 학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는 떨어져 있었다. 좌파 경제학자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었던 그는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대가다운 문제의식과 권위 있는 글 솜씨로 독자들을 정치경제학과 공공정책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이끌고 가서는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하일브로너는 전공인 경제학을 넘어서서 현대의 위대한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 줄거리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하여 슈페터까지 250여 년에 걸친 22명의 경제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경제사의 큰 흐름을 말한다. 시대상황과 경제학자의 생애를 통해 경제학 이론을 창안하게 된 동기를 찾아내고, 그 이론이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각 이론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사상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준다. 철학자, 광인, 성직자, 증권브로커, 혁명가, 귀족, 미학자, 회의론자, 방랑자 등 인생경력도 다채롭고 성격도 각양각색인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생애 가운데 유별난 특징을 소개하여 그들의 경제사상과 개인사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로마인 이야기2~15, 시오노나나미, 한길사, 2007.

[19] 학문의 즐거움

■ 저자소개

히로나카 헤이스케: 히로나카의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업적은 1964년에 증명한 <위수 0인 체 상에서 정의된 대수다양체의 특이점해소 정리>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수학연보(Annals of Mathematics)에 두 번에 나누어 출판되었다. 이 업적으로 히로나카는 1970년에 필즈 메달을 수상하게 된다. 일본인으로서는 고다이로 구니히코에 이어 두번째로 필즈 메달 수상자가 되었다. 세번째로 수상한 일본인은 모리 시게후미이며 1990년에 3차원 대수다양체의 최소모델에 대한 기여로 필즈 메달을 수상하였다. 세 일본인 수상자 모두 대수기하학을 공부한 수학자였다.

히로나카는 오랫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후 일본의 야마구치 대학교 학장을 거쳐, 현재는 소조가쿠엔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다.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일본의 수학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서 일본 문화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2008년 3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좌교수로 초빙되었다.

■ 줄거리

'지혜의 깊이'는 공부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두뇌는 인간 특유의 폭넓은 사고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힘, 즉 '지혜의 깊이'가 키워지지 않는다.-50쪽 - 그로밋

지혜에는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힘'이 있다. '지혜의 힘'이란 결단력을 말한다.-50쪽 - 그로밋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퀴즈나 테스트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할 뿐더러 문제 그 자체의 진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긴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50쪽 - 그로밋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는 몇 퍼센트밖에 해명되어 있지 않은 어떤 난치병일 지라도 의사는 눈앞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무엇인가 처방을 내려야만 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50쪽 - 그로밋

그리고 한 단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비약을 해야 한다.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두뇌의 관용성은 비약하는 것을 비약이 아닌 것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람은 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나 로소에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51쪽 - 그로밋

결단할 수 있는 힘, 어느 순간에 '얏!'하고 비약할 수 있는 힘, 이러한 지혜의 힘은 인생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공부하는 가운데서 키워지는 것이다.-51쪽 - 그로밋

■ 추천의 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나는 남보다 시간을 두 세 곱절 더 투자할 각오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내게 자만에 빠지지 않고 분발하게 하는 금언이었다.

[안철수(기업인) -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국회의원)]

즐겁게 공부하다 인생에도 도통해버린 어느 늦깎이 수학자 이야기. 출협선정 청소년 도서. [김영사 편집부 - 김영사 편집부]

멋진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은 공부이다. [김병완 (한국퀀텀리딩센터 김병완 칼리지 대표)]

[20] 사랑의 기술

■ 저자소개

에리히 프롬: 독일 태생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1922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뮌헨대학교와 베를린의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연구했다. 1933년 나치 치하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할 즈음 정신분석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미국에서는 정통 프로이트학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컬럼비아대학교, 베닝턴대학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미시간주립대학교, 뉴욕대학교 등에서 정신분석학을 강의하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사회와 개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프로이트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 종교 등에 대한 비판적 저서와 인간본성, 윤리학, 사랑에 대한 프롬의 방대한 저작은 사회과학자들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저서로는 《자립적 인간》 《정신분석과 종교》 《자유로부터의 도피》 《건전한 사회》 《사랑의 기술》 《희망의 혁명》 《인간의 마음》 등이 있다.

■ 줄거리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사랑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프롬이 던진 이 질문은 《사랑의 기술》이 출간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랑의 기술》은 1956년 첫 출간 이후 3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 스테디셀러이자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걱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p. 42)

■ 추천의 글

프롬은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책에서 말하고자 하였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자기를 위한 인간, 에리히 프롬, 나무생각, 2018.

[21]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 저자소개

페르낭 브로델: 1902년에 프랑스의 로렌 지방에서 태어났다. 소르본 대학에서는 역사학과 지리학을 전공하여 1923년에 학위를 받고, 알제리, 프랑스, 브라질 등지에서 강의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그의 첫 번째大作인 『지중해: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를 구상했다.

■ 줄거리

이 책은 페르낭 브로델이 1976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세 번에 걸쳐 강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프랑스어 강연 원고를 토대로 1977년에 영역본이 먼저 출간되었고, 지금 출판하는 한국어판 번역서의 프랑스어 원저는 1985년에야 출간되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강연은[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브로델은 여러 가지 개념을 정밀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다양한 사료를 기반으로 방대한 분량을 저술했던 학자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강연 원고는 브로델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냈을 것이다. 한국의 독자들이 방대한 브로델의 저서를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았을 것이다. 짙막한 분량으로 브로델 본인이 집약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서구언어권에서도 이 책의 원저와 번역본은[물질문명과 자본주의]못지않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역사학의 교황’이라는 찬사가 손색없던 브로델은 ‘구조’와 ‘전체사’의 틀로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현대 역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브로델의 가장 야심찬 작업은 그러한 틀거리로 자본주의 문명의 심층을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따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카멜레온과 히드라 같은 존재임을 밝혀냄으로써, 우리에게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참신하고도 넓은 지평과 해안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그가 심혈을 기울인 ‘장기지속으로서의 자본주의’ 연구의 결정판이었던[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길잡이판 격으로 그의 방대한 연구를 간결하고 수월하게 읽게 해준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슈퍼 스톡스, 켄 피셔, 중앙북스, 2019.

[22] 내 마음을 읽는 시간

■ 저자소개

변지영: 고등학생 시절, 갑작스럽게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우울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 대신 책을 파고들었고, 철학자들의 뜻 모를 말을 끄덕대고 읽어가며 위안과 작은 깨달음을 얻었지요. 어른이 되면서 그때 그 의심들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바뀌었고, 그 답을 찾는 탐색의 끝은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닿았습니다. 책 만드는 일을 한동안 하다가 서른다섯 살 언저리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학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와 생활이 하나되는 삶을 지향하는 '공생연' 소장입니다.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에서 '자기자비self-compassion와 부부관계 질'에 관한 연구로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건강심리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에요. 누구나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마음챙김mindfulness과 자기자비가 생리·심리·사회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 책 소개

'나답게 사는 삶'의 실마리를 찾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구'들을 모았다. 지금껏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했던 내용들 중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한 개념들을 고른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화제가 되는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했다.

우선 1부에서는 '내 마음 읽는 법'을 소개한다. 내 마음을 읽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다면, 관계로 고민하고 감정적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를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관계'와 '감정'을 통해 나를 읽는 마음도구 4가지가 1부에 등장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1부에서 파악한 나 자신과 함께 '삶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쓸 마음도구 3가지를 만날 수 있다.

■ 추천의 글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책은 마음이란 게 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는지 참 친절하면서도 성실하게 설명해주네요. 심리학

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심리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연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살펴 진정 마음대로 사는 법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서늘한여름밤 (심리학자, 블로거,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저자)]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숲, 2016.

[23] 생각에 관한 생각

■ 저자소개

대니얼 카너먼: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설명한 혁신적 연구 「전망이론」으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979년 처음 발표된 이 이론으로 인해 그 해는 행동경제학의 원년으로 명명되었다. 심리학자인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완벽히 융합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인'으로 선정, 2007년에는 평생을 심리학에 바쳐 이룩한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 미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1년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일류 사상가'이며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금융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한 명이다.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로 수많은 기념비적 논문을 집필했고, 21세기 가장 탁월한 학문으로 꼽히는 행동경제학의 개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살아있는 경제학' 그 자체라고 평가받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며 열정적인 학자이다.

■ 책 소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소소한 곱셈 문제에서부터 그림 문제, 도형 문제, 그리고 어려운 살인 사건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대도시 택시 뺑소니 사건 등 수많은 퀴즈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하나씩 시간을 들여 풀어보고 생각해보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퀴즈들은 모두 위대한 사회과학 이론의 토대가 되는 연구의 시발점이다. 석학의 연구 결과에 도전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찬찬히 읽어보라. 생경했던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용어와 개념이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고, 한 몸에서 따로 놀던 두 개의 자아 중 자신이 어느 쪽을 편애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더욱 더 바람직한 자아 형성에 힘쓰게 될 것이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결국 인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각이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생각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많은 행동경제학 도서가 시중에 나왔지만, 정작 그 학문을 창시한 사람의 책은 없었다. 이제야 마침내, 우리는 행동경제학의 시작이자 끝에 위치한 단 한 사람의 모든 정수가 담긴 위대한 책을 만난다! <워싱턴포스트>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능의 함정, 데이비드 롭슨, 김영사, 2020.

[24]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작가 소개

벨 훅스:

젠더, 인종, 계급, 교육 등 다방면에서 수십 권이 넘는 책을 쓴 영향력 있는 페미니즘 이론가, 문화비평가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연자로 세계 각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글을 쓴다. 본명은 글로리아 진 왓킨스(Gloria Jean Watkins)이며 필명을 소문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특권을 갖게 될 거란 염려에서다. 스탠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 여성학 강의를 들으며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고, 19세에 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는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선정한 '가장 훌륭한 여성 작가의 책 20권'에 꼽혔다. 예일 대학교와 오벌린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뉴욕시립대학교 영문학과 특별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국도서상, 콜럼버스 재단상 등을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대안 언론 <유티 리더>의 '당신의 삶을 바꿀 100명의 지성' 중 한 사람으로 뽑힌 바 있다.

■ 책 소개

미국에서 첫 출간 후 20년 넘게 페미니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페미니즘 분야의 고전이라 할 만한 이 책은,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한 차례 출간되었으나 절판되었다. 2015년 미국에서 출간된 개정판을 저본으로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내며 원제를 살리고 번역 또한 새로이 했다. 본문 뒤에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의 해제를 실었다. 권김현영의 해제는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페미니즘 열풍을 차분히 되짚으며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책이 유효한지 그 의의를 짚어본다.

벨 훅스는 페미니스트 하면 한 무리의 성난 여자들,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들이라는 편협한 이미지를 곧장 떠올리는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녀는 특유의 직설적인 문체와 통쾌한 논리로 여성의 몸, 여성에 대한 폭력, 연애와 결혼, 양육, 일터에서의 여성 등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페미니즘 정치와 그 실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혐오운동'이 아닌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기 위한 운동'임을 강조한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끔 돕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운동임을 보여줌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한다.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라는 간결한 정의를 읽고 또 읽어서 그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랐다.
- 파스칼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페미니스트의 눈으로 다시 본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만, 그 눈은 그에게 고유한 자신으로 삶을 사는 굳건함, 아무도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없는 단단함,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다주었다. 여전히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지만 분명한 점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온 시간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오늘도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는 삶을 계속하자고 다짐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벨 훅스, 책담, 2017.

[25] 기브앤테이크

■ 작가 소개

애덤 그랜트: 국심리학회와 경영학회,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에서 각각 '젊은 학자상'과 '우수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인력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 경영계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가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기업 및 단체로는 구글, 골드만삭스, 디즈니 픽사, 세계경제포럼, 유엔, 미국 육군과 해군, 미식축구연맹(NFL) 등이 있다. 《오리지널스》에서 그는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계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 차별화된 통찰을 통해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특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그의 첫 번째 저서 《기브앤테이크》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7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아마존, 애플,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 책 소개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 즉 강하고 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 독식'의 근본 명제를 뒤집는다. 또 착한 사람은 이용만 당할 뿐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깨뜨리며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며,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즉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놀랄 만큼 방대한 사례와 입체적인 분석, 빈틈 없는 논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말콤 글래드웰에 비견될 만큼 창의적인 분석력과 놀라운 흡인력을 선사하는 이 책은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통찰을 안겨준다.

- 로버트 서튼, 스탠퍼드공과대학 경영과학 교수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 위즈덤하우스, 2019.

[26] 소비의 사회

■ 작가소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주요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1986년부터는 파리 9대학인 도팽대학의 IRIS, 즉 사회경제 조사연구 및 정보 연구소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40여 년 동안의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탈현대의 사회이론가, 하이테크 사회이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이론가로서의 명성과 입지를 굳혔다. 2007년 3월 6일 장티푸스로 그가 죽었을 때,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언론이 그의 사망 소식을 타전하며 조의를 표했다. 저서로는 <소비사회>(1970),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972), <생산의 거울>(1973), <상징적 교환과 죽음>(1976), <푸코 잇기>(1977), <침묵하는 다수의 그늘 아래서>(1978), <유혹에 대하여>(1979),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1981), <차가운 기억들 1,2,3>(1987~95), <악의 투명성>(1990), <완전범죄>(1994), <이타성의 형태들>(1994)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로 이름을 떨친 장 보드리야르는 사물(상품)의 소비를 사용가치의 소비보다는 행복, 안락함, 사회적 권위, 현대성 등의 소비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착상을 통해 그는 사물을 기호로 파악하고, 사회를 언어의 체계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특정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며, 이런 해석 방식을 기초로 '사회적 차이화의 이론'을 만들어낸다. 『소비의 사회』는 보드리야르의 이 같은 혁신적인 이론을 전개한 책이다.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 정의하고 상품의 소비란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며, 소비에 소비의 본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의 본질을 분석한 사회학서다. 현대 사회학에서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이후 최고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현대사회학의 명저로 손꼽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학사에 길이 남을 고전으로서의 지위도 확고하게 차지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 대중사회에 대한 저자의 귀중하고도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소비 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저, 이기숙 역. 아비요. 2014
탈성장사회. 세르주 라투슈 저, 양상모 역. 오랜된생각. 2014.

[27]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 작가소개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 프랑스 뻬와띠에 에서 1926에 태어났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등을 공부했으며, 니체, 하이데거, 바타이유, 바슐라르, 깡길렘, 알튀세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파리대학 반센 분교 철학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끌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는 한편,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1961)와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을 저작하였다. 그 밖에 『광기와 문화』 『정신병과 심리학』 『비정상인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자기의 테크놀로지』 등의 저서가 있다. 또한 푸코를 다루는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푸코는 1984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감시와 처벌』은 처벌의 종류와 감시방법, 감옥의 탄생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감옥과 처벌의 내면적, 외형적 변화를 통해 근대 이후의 행형사법제도와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보다 정교해진 행형기술이 사회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국가관리술로 발전했음에 주목하며, 감옥, 소년원 등에서 주로 활용됐던 복종, 시간표에 의한 인력관리, 규율에 대한 강조가 군대, 학교, 병원, 공장 등 사회전체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미셸 푸코는 기존 사회이론의 문제제기와 다른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사회 구조나 언어 구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조주의(후기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대학생들은 잘 짜여진 어떤 틀, 즉 구조로 인해 인간의 자아나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광기의 역사.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나남출판사. 2003.

성의 역사. 미셸 푸코 저, 문경자, 신은영 공역. 나남출판사. 2004.

지식의 고고학. 미셸 푸코 저, 이정우 역. 민음사. 2000.

[28] 오래된 미래

■ 작가소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 현대 산업사회의 토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등한 삶의 방식 실현에 필요한 원칙을 모색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 여성학자이다. 또한 그녀는 ISEC (국제생태문화협회)와 ISEC의 자매단체인 라다크 프로젝트(The Ladakh Project)의 책임자로, 경제개발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적인 규모의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고국 스웨덴 및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공부했으며, 공식 전공은 언어학으로 MIT대학에서 촘스키오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다. 유럽과 북미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강연을 했으며, 1986년 흔히 '대안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스웨덴 바른생활재단 '바른생활상'을 받았다.

■ 책 소개

『오래된 미래』는 1992년 발간 이후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책으로 서구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을 통해 사회와 지구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 전통에 관하여는 1975년 언어학자인 저자가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2부 변화에 관하여는 1975년 인도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가 외국 관광객들이 가지고 들어온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담았다. 3부 미래를 향하여는 헬레나 호지가 라다크 사회의 회복을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인 '에콜로지및문화를위한국제협회(SEC)'의 구체적인 활동과 '라다크 프로젝트(Ladakh Project)'에 대한 소개와 활동 상황을 그리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29] 인류학 보고서

■ 작가소개

이경덕 : 문화인류학 박사. 저술가 및 번역가.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 종교 문화, 신화와 축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쓴 책으로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신화》 《릴레이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 우리 시대의 거울》 《역사와 문화로 보는 일본기행》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고민하는 힘》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세계가 반한 우리 무형 문화재》 등이 있다.

■ 책 소개

지구인이 알아야 할 인류 문화 이야기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이 책은 가상의 외계인 보고서를 통해 사회학, 문화의 교류와 변화, 성 역할, 종교의 역할 등 인류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지구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외계인들의 입을 빌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풀어가면서, 인류 문화의 본질을 꿰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낸다. 가령,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왜 세상에는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 보고서에 실린 글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문화만을 다루지 않으며 우리에게도 낯선 민족들의 문화를 다루고 있어 흥미로운 문화와 인류를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에서 3자인 외계인의 시각이란 인류학의 시각을 의미한다. 저자는 인류학의 시각에서 다채로운 인류 문화를 흥미롭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대학생들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인류 문화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슬픈 열대. C. 레비 스트로스 저, 박옥줄 역. 한길사. 1998.

[30] 노동의 종말

■ 작가소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이다. 1945년생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터프츠 대학의 플래처 법과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그 후 워싱턴시의 경제동향연구재단(FOET)을 설립해 현재는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 세계 지도층 인사들과 정부 관료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집필 작업을 해왔다.

■ 책 소개

제레미 리프킨의 대표적인 저서 <노동의 종말>이 1996년에 초판이 출간된 후 9년 만에 새롭게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 서문에서 자신의 전작들을 모두 압축해 놓은 듯한 깊이와 함께 한층 더 예리해진 자신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개정판 서문에서 지난 9년 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를 통해 <노동의 종말>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를 통해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률은 증가해만 가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내고 있다. 동시에 리프킨 자신이 제시했던 전 지구적인 실업의 심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노동의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류의 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리프킨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논의하기 싫어하는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매우 용감하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 책에서 리프킨은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매우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현재 사회에 대한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도미니크 슈나페르 저, 김교신 역. 동문선. 2001.

[31]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작가소개

리처드 니스벳(Richard E. Nisbett) : 리처드 니스벳은 미국 미시간대 심리학과 석좌교수로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왔다. 그는 그의 책 『생각의 지도』는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실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통념들을 과학으로 증명해 주는 리처드 니스벳의 글을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책 소개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 사회구조, 철학사상, 교육제도로 인하여 매우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동양은 좀더 '종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부분보다는 전체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사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파악한다.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 방식은 사물과 사람 자체에 주의를 돌리고, 형식논리나 규칙을 사용하여 추리한다.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 사이에는 풍수 사상에서 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언어에서 상업적 전통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책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길로 안내하는 지도로서, 동시에 그러한 차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을 해부한 비교문화 연구서이다. 저자는 동서양간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동서양적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균형감을 익히고 동서양 사고방식의 장점들을 자신의 전공이나 학업에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 박기태 저. 랜덤하우스 코리아. 2011.

[32]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 작가소개

니콜라스 카(Nicholas G. Carr) :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이자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글로벌 CEO 132인에 뽑히기도 한 니콜라스 카는 IT 비즈니스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3년에 발표한 글 “IT Doesn’t Matter”는 ‘50메가톤급 스마트폭탄’의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CEO 스콧 맥닐리, MS의 스티브 발머, 휴렛패커드의 칼리 피오리나, 인텔의 크레이그 바렛 등이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글을 「애틀랜틱」(The Atlantic)에 발표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책 소개

인터넷, 정보기술,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밑줄을 그으며 지식을 얻기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차고 넘치며,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정보를 찾아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더 스마트해졌을까? IT 전문가이자 저명한 칼럼리스트인 저자 니콜라스 카가『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종속된 이후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글을 쓰는 방식과 읽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도구에 익숙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물론 신경체계와 궁극적으로는 뇌 구조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이라는 도구의 발달이 우리의 사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터넷이 주는 혜택과 더불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예리하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유리감옥. 니콜라스 카 저, 이진원 역. 한국경제신문사. 2014.

[33]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고, 분열하고, 만들어지는가

■ 작가소개

크리스티안 루더 : 미국에서 손꼽히는 데이트 사이트 Ok큐피드(OkCupid)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제는 전설이 된 Ok큐피드의 추세 분석을 이끌어 온 데이터 과학자. 1998년 하버드 대학 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 후 학습 사이트 스파크노트(SparkNotes)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NBC 뉴스 프로그램 '데이트라인(Dateline NBC)'과 NPR(미국 공영 라디오)의 코너에 출연했고 [뉴욕타임스], 《뉴요커》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 연구 결과를 실었다. 아내, 딸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살며 인기 블로그 Ok트렌드(OkTrends)를 운영하고 있다.

■ 책 소개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에서 크리스티안 루더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데이터를 이용해 한 사람의 성적 성향이나 지능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아름다운 여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면접 요청을 받는 현상,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조리돌림'과 집단 분노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적일 때와 공적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나이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주제에서부터 인종과 성별에 따라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은 무엇인지, 시골 마을에서 대도시로의 전 세계적 이주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피는 저자의 관심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런 다음, 그는 처음에 지워 버렸던 빅데이터의 두 가지 부정적인 역할을 다시 꺼내, 이런 모든 연구가 가능한 세상에서 자아와 사생활을 지킬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숫자와 그래프라는 자칫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 이야기가 저자의 재치와 통찰력을 통해 재미를 더해 주는 책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현상 분석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에레즈 에이든 외 저, 김재중 역. 사계절.

[34] 에밀

■ 작가소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후 아버지와 형이 행방불명되면서 고아로 자랐다. 1728년 어느 날 교외로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프랑스로 떠나 1732년까지 유럽 각지로 방랑을 계속했다. 1750년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공모에 논문 <학문과 예술론>이 당선되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752년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가 성공한 후 다시 한번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공모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의 파격성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다. 1761년에 연애소설 <신엘로이즈>가 좋은 평판을 얻었고, 그 다음해에는 <사회계약론> <에밀> 등을 발표했다.

■ 책 소개

교육서이자 철학서인 동시에 인간 성장의 내면을 기록한 보고서이기도 한 이 책은 출간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지침서로 제일 먼저 손꼽히는 책이다. [에밀]에는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년기, 그리고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때까지의 교육에 관한 모든 질문과 해답이 담겨 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유롭고 선량하지만 인간 자신들이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 등에 의해 악한 것에 물들고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자연과 본성에 가까운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형성한다는 루소의 인간 교육의 중심 사상이 녹아 있는 책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에밀은 교육론을 소설에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로서 가치가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인간답게 기르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성장단계에 따라 주요 교육 내용과 주장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하여 쉽게 구성하고 있어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최석기 역. 동서문화사. 2007.

[35] 교육의 목적과 난점

■ 작가소개

이홍우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문학사, 1961)와 동대학원 교육학과(문학석사, 1968)를 거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1971)를 취득하였다. 그 후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교과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교육이론의 동양적 전통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교육학은 삶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 삶에서 중요한 문제치고 교육학이 정당하게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강조해 왔다.

■ 책 소개

삶과 공부, 교육과 형이상학, 문자와 교육,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교육과 정신건강, 삶의 자세로서의 교육, 교육의 사회적 측면, 정치와 교육, 삶의 형식과 교육 등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이론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 현직 교육학자의 저술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의 구성은 강의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증이 많아서 처음 교육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우리교육 100문100답. 이범 저. 다산북스. 2012.

[3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 작가소개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 인지언어학의 창시자.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언어학자로 손꼽힌다. 정치 담론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수의 민주당 지지 단체, 진보적 여론 조사 단체, 홍보 회사를 상대로 프레임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민주당 정책 연수회 및 전당 대회에서 연설하고 활동가 지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뇌의 신경 회로가 사고와 언어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다. 저서로 『삶으로서의 은유』 『폴리틱얼 마인드』 『도덕의 정치』 『프레임 전쟁』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인지언어학을 창시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 레이코프가 언어학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10주년 전면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왜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라는 진보의 해묵은 의문에 답하며,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신념이 왜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지 명쾌하게 분석하여 여의도 정치권과 의식 있는 시민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원서 초판 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된 초판에서 두 장을 삭제하고 여덟 장을 새로 추가하여 절반 이상의 내용이 새로 추가된 전면개정판을 펴냄으로써 인지언어학의 최신 성과와 현재의 뜨거운 쟁점들을 대폭 수록했다. 레이코프는 우월한 프레임 구성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후 왜 곧바로 민주당이 다시 프레임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기 위해 이 개정판을 출간한다고 머리말에서 밝혔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저자는 우파가 핵심 개념을 어떻게 프레임으로 구성했는지 밝혀내어 미국 정치에 대한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 난국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수]

■ 함께 읽을 책

프레임 전쟁. 조지 레이코프, 로크리지연구소 공저, 나익수 역. 창비. 2007

[37] 어머니의 탄생 :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 작가소개

세라 블래퍼 허디(Sarah Blaffer Hrdy) : 1946년 7월 11일, 미국 텍사스 주의 댈러스에서 태어나 래드클리프 칼리지(Radcliffe College)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1968년, 인류학자 어빈 드보어(Irven DeVore)의 학부 수업을 수강하던 중 인도의 랑구르원숭이(Langur)가 보이는 기괴한 행동(영아 살해 행동 (infanticidal behavior))에 흥미를 느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영장류 사회 생물학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인도 아부에서 랑구르원숭이, 특히 수컷 랑구르원숭이에서의 영아 살해 행동을 관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975년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연구 결과는 1977년 『아부의 랑구르: 암컷과 수컷의 번식 전략(伊The Langurs of Abu: Female and Male Strategies of Reproduction伊)』으로 출간되었다. 그 외 다수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책 소개

정말로 세상 모든 어머니는 무조건 헌신하는 존재일까? 자기희생적인 모성이 진정 어머니 대자연이 여성에게 부여한 절대 진리일까? 인류학자인 저자, 세라 블래퍼 허디는 『어머니의 탄생(MOTHER NATURE)』을 통해 모성과 여성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15여 년 동안 아마존 저지대와 아프리카 등지의 부족 집단 및 현대 도시 사회, 사회성 곤충과 포유류, 영장류 등 방대한 인류학, 생물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성과 여성·암컷의 본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부제인 "어머니, 아기, 그리고 자연선택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와 아기가 인간 진화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재구성하고, 진화의 핵심 개념인 자연선택에 대한 이해 제체를 역사 속에 위치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인간 진화와 관련한 논쟁에서 핵심적인 가정들을 개척자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짝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암컷 전략이 어떻게 인간 본성의 진화를 이끌었는지 증명하면서 허디는 과학에서의 가장 견고한 이론 일부를 전복하는 데 성공했다.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 자매판의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읽을수록 매혹된다.

- 프랭크 설로웨이(『타고난 반항아』의 저자)

■ 함께 읽을 책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찰스 다윈 저, 이종호 역. 지만지. 2012.

[38] 미디어의 이해

■ 작가 소개

마셜 맥루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르네상스 영문학을 수학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풍자시인 "토머스 내시(Thomas Nashe)의 수사법"(1942)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어섬프션대학교(현 윈저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성 마이클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토론토대학교에 신설된 '문화 및 기술연구소(Center for Culture and Technology)'의 소장으로도 활동했다. 미국 뉴욕 포드햄대학교의 알베르트 슈바이처 체어(Albert Schweitzer Chair)의 명예 교수직을 맡았으며,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제 담당 교황고문에 임명되기도 했다. 영문학자로 출발한 매클루언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전자시대에 대한 문명비평가 또는 현대 사상가로 알려졌다. 그는 시와 수사, 변증의 흥망성쇠를 통해 지난 2000년에 걸친 커뮤니케이션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왔다.

■ 책 소개

매클루언의 고전 『미디어의 이해』는 '읽히기보다는 더 자주 회자되는 책'이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상 자체의 탐색과 탐험 자체를 보여 주려 했던 것이 매클루언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이러한 독해의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으로 역자가 선택한 것은 다소 과감한 역주 달기였다. 『미디어의 이해』를 새롭게 번역한 이 책에는 470개에 달하는 역주가 달려 있다. 명실공히 매클루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역의 해설을 읽으면 매클루언의 난해한 글쓰기 방식이 주는 어려움을 딛고 좀 더 쉽게 미디어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점점 더 메시지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필독서이다.

[선데이 헤럴드]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구촌, 마셜 맥루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9] 시민의 불복종

■ 작가 소개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인. 1817년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1837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콩코드로 내려와 중앙학교에서 잠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1838년부터 1841년 3월까지 그의 형 존과 함께 사립학교를 운영하다가 존이 결핵에 걸려 사망하자 학교 문을 닫았다. 이후 소로는 가업인 연필 만드는 일을 돕고, 측량일을 하는 등 정기적인 직업 없이 시간제로 일했다. 평생 물욕과 상업주의, 국가에 의한 불의를 비판했으며 정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인두세납두를 거부해 투옥되기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쓴 <시민불복종>이 훗날 간디, 마틴 루서 킹 등 비폭력주의 저항운동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책 소개

19세기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잇는 또 다른 명저 <시민의 불복종>이 국내 초역 출간 23주년을 맞아 스페셜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명 수필 '시민의 불복종'을 비롯해, '야생사과' '한 소나무의 죽음' 등, 가슴을 두드리는 소로우의 아름다운 자연 에세이 다섯 편을 편집해 함께 엮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왜 당신네 미국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군인들 말만 듣고 소로우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요?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시민의 불복종》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었다. 소로우는 역시 위대한 인물이다! - 함석헌

나는 소로우에게서 한 분의 위대한 스승을 발견했으며 《시민의 불복종》에서 내가 추진하는 운동의 이름을 땀다. - 마하트마 간디 (사상가)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독의 발견,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이지21, 2019.

[4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작가 소개

막스베버: 독일 에르푸르트 출생.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사회과학자로서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으로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종교학·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당시 뒤쳐져 있던 독일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화에 힘썼다. 그의 업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치자유(물가치성)의 정신과 이념형 조작(操作)이 뒷받침된 사회과학 방법론의 확립, 종교적 이념과 에토스(사회적인 습관)의 역사 형성력에 입각한 유물사관 비판, 근대 서구세계를 일관해서 흐르는 합리화와 관료제적 지배의 현대적 의미의 지적 등이다. 베버의 학설은 사회과학에 광범한 영향을 끼쳤으며, 가치자유, 이념형적 파악, 이해적(理解的) 방법에 바탕을 둔 학문론은 독일역사학 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론이나 관료제론,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마르크스 이론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의를 잃지 않고 있다.

■ 책 소개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쓰여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에 속한다. 이 책은 서구 학문의 경험적 실증적 연구의 축적 위에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이 책을 대하게 될 독자들은 서구 학문의 귀중한 보고의 하나에 입문하는 셈이다. 사회과학 역사과학 학습의 길잡이가 되며, 정신적 사상적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마르크스로부터 마르크스를 넘어서 - 황광우 (<철학 콘서트> 저자)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는 자본주의를 이룬 원동력이다- 나루케 마코토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죄 죽이기, 존 오웬, CH북스, 2020.

[41] 정치 질서의 기원

■ 작가 소개

프랜시스 후쿠야마: 1952년 일본 이민 3세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코넬 대학교에서 서양 고전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비교문학으로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 소재 랜드연구소에 몸담았고, 1989년에는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 차장을 지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지메이슨 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역임한 뒤, 2005년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으로 있으면서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 민주주의·개발·법치주의 센터에 있다.

■ 책 소개

출간되기 전부터 미국 주요 언론과 학자들이 '대작', '새로운 정치학 고전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던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현대사의 커다란 전환기마다 날카로운 전망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후쿠야마가 중국의 부상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 속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제도의 회복을 주장한다. 자유 시장이든 시민사회든 강력하고 질서 잡힌 정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인간의 기원부터 동서양 역사를 아우르는 풍성한 사례, 진화생물학부터 거시경제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쾌한 논리는 정치사상의 거장 후쿠야마의 진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이 책은 오늘날 정치의 과제와 해답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정치비평서인 동시에 역사를 찬찬히 되짚으며 정치 발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2017.

[42]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

■ 작가 소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한국 고대사와 불교사 등을 연구했고 지금은 근대사, 특히 공산주의 운동사에 몰입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당신들의 대한민국』(1·2) 『우승열패의 신화』 『주식회사 대한민국』 등이 있다.

■ 책 소개

비폭력투쟁이라는 것은 고도의 마음 훈련과 인내심, 거의 무한한 마음의 힘을 요구하는, 아무니 할 수 없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최선책인 비폭력투쟁을 할 만한 마음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 폭력투쟁이라도 하는 것이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 "겁이 나서 억압자의 폭력 앞에 움츠려서 보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개해서 폭력투쟁이라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낫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비폭력투쟁의 원조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다. ((중략)) 폭력이 만악의 근원이라 해도, 무관심은 폭력보다 천배 만배 무섭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무관심은 결국 소수의 폭력을 낳는다. (257~258쪽)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러시아 태생의 귀화 한국인' 박노자의 칼럼을 모아 엮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 남은 뿌리 깊은 전근대성을 질타하는 그의 글은 늘 우리들을 각성하게 한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2006.

[43]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 작가 소개

폴 크루그먼: 2008년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진보파 경제학자. 신무역 이론을 개척한 뛰어난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 여건의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고 노력하는 실천적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1953년 미국 뉴욕 주의 주도인 알바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7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스탠포드 대학, 예일대학 및 런던경제 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도 강의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립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서 1주일에 두 차례 현실 문제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 책 소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실천하는 진보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대표적인 케인스주의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보의 양심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가 실패했다고 보는 증거들, 즉 중산층 몰락, 소득 양극화, 의료 보험체계의 모순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답이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적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 것이다.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수수께끼 같은 경제와 정치 흐름을 명쾌하고 흥미롭게 통찰하는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 마지막 애독서로 유명하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가 처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뉴욕 타임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적 분석을 토대로 펼치는

경제에 대한 혜안이 놀랍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미국)]

“폴 크루그먼은 혼란에 빠진 정치와 경제현상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구루다. 이 책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필독서다.” [보스턴 글로브]

“이 책에서 폴 크루그먼은 존 케인스를 넘어선 통찰력과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포춘]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열린책들, 2020.

[44] 오리엔탈리즘

■ 작가 소개

에드워드 W. 사이드: 1935년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이집트 카이로로 이주했다. 1950년대 말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교 영문학, 비교문학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비교문학 객원교수로 지내며 이론가, 문학비평가로 활동했다. 서구인들이 말하는 동양의 이미지가 서구의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된 허상임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을 1978년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밖에 『문화와 제국주의』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문제』 『지식인의 표상』 『저항의 인문학』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1994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3년 9월 24일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다.

■ 책 소개

저자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이라고 말한다. 곧 오리엔탈리즘으로 총칭되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 인식, 표현의 본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와 직결된 것임을 밝히고 얇과 힘-지성과 권력의 관계를 식민지적 상황에서 인식시키고자 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지리적 확장과 식민지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결부되어 지배의 양식으로 대두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0세기의 영국 및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현대 미국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세계정책에 이르는 오리엔탈리즘의 기능으로서 저자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집요하게 추구해 온 유태-아랍문제를 축으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서구의 이슬람 여론조작에 대한 비판의 기본을 이루는 총론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45]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작가 소개

라인홀드 니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나 예일대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13년 동안 디트로이트에서 목사로 활동하다가 1928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20여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석사졸업이 전부였지만 18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니버는 많은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 책 소개

현대 기독교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라인홀드 니버의 대표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증보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 증보판에는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이며 권위 있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코넬 웨스트(유니언 신학대학) 교수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라인홀드 니버의 지도 아래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랭든 B. 길키(시카고대학교) 교수의 서문을 새롭게 번역해 수록했다.

두 서문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갖는 사회적·철학적·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책이 정치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를 알려준다. 새롭게 추가된 서문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뿐 아니라 라인홀드 니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20C를 움직인 책, 개인-집단의 행동양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정의 수립방안 제시

1932년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1892-1971)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성적으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 지식인들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책의 제목이 그대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2011.

[46]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작가 소개

토드 부크홀츠: 세계 유수의 투자 회사들에서 투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는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경제담당 비서관을 지냈고, 세계적인 헤지 펀드 기업인 타이거Tiger의 펀드 매니저를 역임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개론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직접 뽑은 명강의에 수여되는 '앨런 영'상 Allyn Young prize을 받았다. ABC 뉴스, PBS, CBC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논평을 하고 있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저지 보이즈 (Jersey Boys)]의 공동제작을 맡기도 했다.

■ 책 소개

위대한 경제학 대가들이 펼치는 300년 경제사상사 명강의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 앨프리드 마셜의 수요공급 곡선, 로버트 루커스의 합리적 기대이론, 대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까지 놀라운 통찰력과 지성으로 300년 경제학 역사를 이끌어온 거장들을 한 책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제학은 왜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할까?”에 대한 영원한 물음을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사상과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에너지 수요 증대, 중국의 부상, 노령화 등 21세기 주요 경제문제들에 대해 놀라운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먼저 읽고 교과서로 채택한 21세기 경제학 고전! 15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인의 경제교양서! 애덤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의 대표 경제학 이론부터 루커스, 카너먼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연구까지 경제학 대가들이 펼치는 300년 경제사상사 명강의!

[출처 : 김영사 출판사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속의 철학자들,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이마고, 2008.

[47]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 작가 소개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이자 사상가로 비폭력운동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869년 10월 2일, 인도 서부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나 18세 때 런던에서 법률을 배우고, 1891년 귀국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893년의 남아프리카 여행에서 백인에게 박해받는 인도인들을 보고 1915년 귀국할 때까지 인도인의 지위와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아힘사(불살생), 무소유, 무집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바탕 위에 사티아그라하(진리의 주장) 운동, 아슈람 공동체 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의 일환으로 납세 거부 · 취업 거부 ·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지도했다. 인도 카스트의 최하층인 하리잔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그가 보인 평화정신은 세계인의 공감을 자아냈다.

■ 책 소개

간디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스와라지', 즉 자치, 자립의 사상은, 일종의 중세적 보수주의 경제사상인 양 받아들여져 경시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계의 현실이 간디가 깊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갈수록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간디의 선견지명과 그의 중심적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현실성과 호소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많은 헌신적인 노력들 속에서 지금 간디의 사상은 세계 전역에서 다시 새삼 활발하게 음미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아마도 간디의 '마을 스와라지' 사상과 그 실천이 지금 인류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희망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에는 간디의 방대한 저작물 중 여러 다양한 출처에서 발췌된 글들이 '마을자치'라는 큰 주제 밑에 다양한 항목별로 재배치되어 있다. 이 '위대한 영혼'이 왜 이토록 풀뿌리 민중의 삶의 온갖 세부에 관하여 자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책은 독특하고 감명적인 사상서의 하나로 분류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간디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한길사, 2002.

[48]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작가 소개

장성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환경을 비롯한 여러 주제로 글을 써 왔다. 환경 인문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으며, 지금은 책을 쓰면서 환경 평론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출판 기획, 강연, 시민 환경운동 단체 활동 등도 함께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 『과학이 해결해 주지 않아』 『환경 논쟁』 『생명윤리 논쟁』 『왜 너희만 먹는 거야?』 『혼자라서 지는 거야』 등이 있다.

■ 책 소개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슈마허의 역작으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서구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라보는 책. 성장지상주의를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작은 것'의 실천적 방법으로 지역 노동과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작업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 단위에 기초를 둔 중간 기술 구조만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슈마허의 역작으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서구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라본다. 슈마허는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 것'을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

복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노동과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작업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 단위에 기초를 둔 중간 기술 구조만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 기술이란 인간을 생산 과정에 복귀시켜 생존수단의 부재로 빈곤에 시달려온 많은 이들을 구제할 방법으로, 대량 생산 대신 대중에 의한 생산을 이루어줄 유일한 대안이다.

[출처 : 문예출판사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2011.

[49] 경제학 콘서트 1

■ 작가 소개

팀 하포드: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가장 인기 있는 수석 칼럼니스트이자 3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150만 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 세계은행과 왕립경제학회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왕립통계학회의 명예 회원이자 옥스퍼드 너필드 칼리지 객원 연구원으로 있다. 2014년 올해의 경제해설자상, 2015년 비즈니스 경제학자협회상을 받았다. 재능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들에게 수여하는 바스티아상은 2006년과 2016년에 걸쳐 두 번 수상했다.

■ 책 소개

이 책은 시장경제의 세계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경제학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학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타벅스 커피나 슈퍼마켓, 교통체증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사례를 통해 희소성, 내부정보, 효율성, 시장의 힘, 게임 이론 같은 경제학의 중요 내용을 은연중에 다루면서 이러한 힘들이 우리의 경제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경제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동시에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경제학 안내서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독자들을 사로잡는 보기 드문 역작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제적 논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훌륭히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기업경영자, 대학생들을 비롯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의 저자]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2006.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중앙북스, 2015.

[50] 공유의 비극을 넘어

■ 작가소개

엘리너 오스트롬: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의 대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 책 소개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이 담긴 책.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

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출처: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저자는 시장과 정부라는 해법 사이에 자치조직 같은 수많은 절충적인 해결책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정말 잘 쓰인 매혹적인 책이다.

[브루노 S. 프라이]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문학동네, 2015.

[51] 세계를 바꾼 20가지 공학기술

■ 작가소개

대표저자 이인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다. 신문에 500편, 잡지에 160편 이상의 칼럼을 연재했으며,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지식의 대융합』·『이인식의 멋진 과학』·『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등의 책을 펴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국내 공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들이,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공학기술 20가지를 선정하여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B.C. 1200년경 탄생한 나침반으로 시작해서, 종이 제조술과 인쇄술, 1984년 탄생한 DNA 합성기술인 중합효소연쇄반응까지 연대별로 정리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학은 '공업을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자연과학적 수법을 써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학의 핵심은 예전에는 없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테면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고, 더 작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공학기술이다. 요컨대 공학이 다루는 대상은 원래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학이란 무엇인가. 성풍현. 살림. 2013

[52]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

■ 작가소개

저자 홍성욱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사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박사후과정을 거쳐, 같은 대학교 과학기술사철학과 종신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디브너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전공 주임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홍성욱의 과학 에세이》, 《과학은 얼마나》,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Wireless—From Marconi's Black-box to the Audion》(MIT Press),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 《잡종, 새로운 문화읽기》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과학혁명, 인간의 역사, 이미지의 비밀을 밝히는 하이브리드 철학자 홍성욱의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 과학에 사용된 여러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이 걸어온 역사를 복원하는 책이다. 과학에서 사용된 여러 이미지들을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위치시키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이미지 독해력을 높여주고자 한다.

과학의 역사는 냉정한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해온 역사로만 기술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과학에서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과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읽어가며 더 흥미롭고, 더 살아 있으며, 더 인간적인 과학을 마주하게 해준다. 로도비코 카르디 다 치골리의 '성모 마리아', 자크 루이 다비드의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와 그의 아내 라부아지에 부인'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인문, 예술, 과학의 융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의미가 없듯이 학문 분야에는 더 이상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게 하나의 학문만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이 살던 때에 많은 예술가들이 원근법을 연구하고 이를 그림에 표현했던 학문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학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듯 싶다. '그림'과 '과학사'가 절묘하게 만나서 지루함과 고리타분함이라는 편견을 깨 준 이 책처럼 말이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과학이 빛나는 밤에. 이준호. 추수밭. 2013.

[53] 과학혁명의 구조

■ 작가소개

저자 토마스 S. 쿤(Thomas Samuel Kuhn)은 1922년에 태어난 토머스 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1943년에 같은 대학교에서 최우등 졸업을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사학과, 프린스턴 대학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 교수를 거쳐 MIT의 언어학 및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의 저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 이외에 《코페르니쿠스 혁명(The Copernican Revolution)》과 《본질적 긴장(The Essential Tension)》, 《흑체 이론과 양자 불연속(Black-Body Theory and the Quantum Discontinuity)》, 《구조 이후의 길(The Road since Structure)》 등이 있다. 쿤의 책에 대한 서평이나 논문은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과학혁명의 구조》는 20세기 동안에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서로 꼽힌다. 그의 업적은 과학사와 과학철학 분야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었다. 20세기 후반의 현대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쿤은 1996년 6월에 타계했다.

■ 책 소개

『과학혁명의 구조』는 현대 물질문명을 받쳐주고 있는 과학의 본질적 성격을 파헤치고 있어 현대 지식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이다. 《과학혁명의 구조》(1962)의 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이 책에서는 저명한 분석 철학자이자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푸코의 사회과학 이론에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이 쓴 서론이 추가되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과학혁명’, ‘패러다임’, ‘정상과학’ 등의 개념들을 사용한 쿤의 과학관은 과학사와 과학철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역사학과 철학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들과 심지어는 문학, 예술 이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제4판 출간을 계기로 홍성욱 교수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한 개정판이 나오게 되어 우리나라 독자들이 쿤의 관점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식(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학라이더를 위한 개념어 사전. 조광제. 생각정원. 2012.

[54] (꼭 한번은 읽어야 할)생물학 이야기

■ 작가소개

저자 김웅진은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에서 핵질의 구조와 세포분열 사이클 연구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는 신호전달체계와 생물정보학을 연구했고, 지놈지도 작성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에 참여했다(Bacterial Artificial Chromosome개발). 지놈프로젝트의 국제컨소시엄에 칼텍지놈연구소 소장 및 미국 NIH와 DOE 지놈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의 The Institute for Genomic Research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영국의 MRC 및 Sanger Center 와의 협력으로 인간염색체 22번의 매핑과 시퀀싱에 참여했다. 또한 21번, 17번, 16번, 11번 등의 염색체 연구에도 참여했으며, 암 유전자 지도와 고세균 지놈프로젝트를 담당했다. 해양극피동물의 지놈연구와 발생학, 유전자조절 네트워크, 진화뿐만 아니라 과학 일반과 인문·사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인간지놈프로젝트(HGP)를 성공으로 이끈 한국의 석학 김웅진 교수는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적인 지식들만으로는 생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오해는 물론, 생명과 인간, 자연에 대한 무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생물학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지, 생물학이란 무엇인지'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생물학자들의 계보와 생물학의 역사까지, 말 그대로 생물학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생물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전체 맥락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생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 역사를 바라본다. 진화의 역사,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 뇌과학과 인지과학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청소년은 물론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은

성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풀어놓았다. 때문에 생물학적 지식은 물론 우리의 인생과 전체 과학, 생명현상을 관통하는 유용한 사고의 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 몸안의 작은 우주 분자생물학. 하기와라 기요후미. 황소연. 전나무숲. 2015.

[55] 제대로 노는 물리법칙

■ 작가소개

저자 이기진은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과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적 국제 저널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공상을 즐기던 청소년 시절 우주의 세계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물리학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물리학자를 꿈꾸고 있다. 또한 동화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잡지 <에땅>에 '바나나 박사과 깍파의 모험'을 연재하고 있으며, 영어동화 <The Adventure of KaKa>를 6개 국어로 출판한 것을 비롯, <박치기 깍파>, <나노보이의 우주 탐험> 등을 출간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인기그룹 2NE1의 멤버, CL의 아버지이며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저자가 직접 그리고 쓴 기발하고 도발적인 과학 이야기『제대로 노는 물리법칙』. 저자가 물리학자로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물리학자, 동화작가, 만화가를 꿈꾸는 저자의 재기발랄한 그림과 재치넘치는 문체가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친근하게 들려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모든 것이 CL의 인기를 실감하는 증거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저자 이기진교수도 말했듯이 이 책을 한번은 읽어 볼 자신의 딸(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쓴 글이라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자신의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한번은 읽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재밌어서 밤새 읽는 물리이야기. 사마키 다케오. 김정환. 더숲. 2013.

[56] 과학자의 관찰노트

■ 작가소개

저자 에드워드 O. 윌슨 Edward O. Wilson은 개미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개미가 페로몬을 이용해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개미 연구를 적용해 모든 사회적 생물을 설명하려는 '사회생물학(sociobiology, 인간 행동이 일부분 유전학에 기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을 그의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았다. 《인간에 대하여》로 1978년 풀리처상을 받았으며, 1991년에 《개미》로 베르트 홀도블러와 공동으로 한 번 더 수상했다. 그 밖에도 미국 국가 과학상, 스웨덴 왕립 과학원이 수여하는 크라포드상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상을 받았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지성으로 손꼽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철학적·환경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펠레그리노 석좌 교수이자 명예 교수로 있다.

■ 책 소개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12가지 방법『과학자의 관찰노트』. 동물행동학, 생태학, 고생물학, 곤충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노트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곤충학자가 캔필드가 펼친 다윈의 노트부터 달리는 과학자, 베르트 하인리히, 개미를 찾아 오지로 떠난 에드워드 O. 윌슨 등 15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노트를 만나볼 수 있다. 들고 다니기 편한 수첩부터 아주 사적인 감상이 담겨 있는 일기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탐사 전용 노트까지 자연 현장이 담긴 과학자의 생생한 관찰 기록을 들여다본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단순히 관찰 노트를 잘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 설명서가 아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과학자들의 삶과 그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 주는 책이다. 들고 다니기 편한 수첩부터 아주 사적인 감상이 담겨 있는 일기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탐사 전용 노트까지 자연 현장이 담긴 과학자의 생생한 관찰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판타스틱 과학 책장. 이정모 외. 북바이북. 2015.

[57] 다윈 지능

■ 작가소개

저자 최재천은 서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 전임 강사, 미시간 대학교 조교수, 서울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 여자 대학교 에코 과학부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개미를 비롯한 사회성 곤충과 포유동물의 사회 행동 및 인간 두뇌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구농할리문-살라크 국립 공원에서 자바긴팔원숭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개소한 통섭원(統攝苑)을 중심으로 자연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여러 젊은 학자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중남미 정글에서의 현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쓴 첫 책 『개미제국의 발견』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번역, 소개하여 한국 사회에 통섭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미국 곤충학회 젊은 과학자상, 대한민국 과학 문화상, 국제 환경상, 올해의 여성 운동상 등을 수상했고, 『개미제국의 발견』으로 한국 백상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대담』(공저), 『호모 심비우스』 등이 있으며, 『통섭』, 『인간의 그늘에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등을 번역하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최재천이 전하는 공감의 시대를 위한 다윈의 지혜 『다윈 지능』. 이 책은 진화론의 핵심과 현주소를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된 지식 생태계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다윈의 지혜를 알려주는 과학서이자 인문 교양서이다. 150여 년간 진화 이론이 발전해 온 과정과 진화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뇌들의 설전, 그리고 현대 진화 이론의 핵심을 오롯이 담고 있다. 자연 선택 이론으로 대변되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DNA의 구조로부터 인류의 사회 생활과 문명에 이르기까지 원리로서 작동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경제학을 비롯하여 종교 논쟁, 21세기 인류 문명사회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현대 진화 이론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이와 함께 다윈 지능에 힘을 보탠 수많은 지성들의 업적들을 함께 보여주며 변화된 지식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책의 구성은 '다윈의 주장'을 최재천 교수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와 연구 실적, 최근 학계의 동향, 사건 등을 통해 맛깔나게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아주 놀라운 것은 책의 깊이가 매우 적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지나치게 대중적이지도 않으면서 가끔씩 등장하는 전문용어는 지적 욕구의 충족과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송철용. 동서문화사. 2009.

[58]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

■ 작가소개

저자 샌드라 스타인그래버. 1959년 미국 출생. 생물학 박사이자 문예창작학 석사인 그녀는 '칼을 쥔 시인'이라는 별명답게 시를 쓰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미시간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생물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전문지식과 시적인 문장을 결합한 글쓰기로 '제2의 레이첼 카슨'이라고 평가 받는다.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암의 관계를 탐구한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은 여러 언론 매체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 업적을 두고 2001년에 채텀대학은 격년으로 주어지는 레이첼 카슨 리더십 상을 수여했다. 또한 그녀는 2006년 유방암기금의 히어로상, 2009년 로스앤젤레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사회의 환경건강 챔피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의 회고록 '모성혁명'은 임신의 생태를 친밀하게 탐구했고, '도서관 저널'은 이를 2001년 최고 도서로 선정했다. 현재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유방암연구 프로그램 자문위원, 잡지 '오리온'의 칼럼니스트이자 이타카대학교 상근 연구자로 근무 중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공기, 물, 흙, 음식에 스며든 죽음의 물질을 찾아서『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 현재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유방암연구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잡지<오리온>의 칼럼니스트이자 이타카대학교 상근 연구자로 근무 중인 저자 샌드라 스타인그래버가 그동안 유전과 생활 방식이라는 틀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암과 환경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은 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무책임하게 유해물질을 만들어 내고 또 버리는지, 특정 물질을 다루는 직업들과 암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사용하는 농약은 무엇인지 등 우리를 둘러싼 공기, 흙, 물, 음식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풀어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우리는 생활방식의 개선을 암 예방법의 중심요소로 다루는 반면, 환경요인은 하찮은 문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는 발암물질보다 개인습관을 강조함으로써 암이라는 질환의 원인을 질환 유발물질에 '노출'되는지의 문제보다 '행동방식'의 틀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 책에선 저자는 저자는 그동안 유전과 생활방식이라는 틀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암과 환경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은 시선을 보여준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에코빌리지, 지구 공동체를 꿈꾸다. 캐런 T. 리트핀. 강경이. 시대의 창. 2015.

[59] 수학 시트콤: 발칙한 상상으로 가득한 17가지 수학

■ 작가소개

저자 크리스토프 드뢰서 Christoph Drosser는 독일의 주간지 《디 차이트 Die Zeit》의 과학 담당 편집자로, 1997년부터 일상적인 속설에 관한 과학 칼럼 <맞아요? Stimmt's?>를 연재했다. 이 칼럼은 책으로도 엮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현재 독일의 공영방송사 NDR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다. 드뢰서는 일상 속 수학을 다룬 《수학 시트콤 Der Mathematikverfuhrer》으로 독일에서 수학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2008년에 독일수학협회로부터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 책 소개

발칙한 상상으로 가득한 17가지 수학『수학 시트콤』. 일상이 녹아 있는 작은 이야기를 독일인 특유의 감수성으로 그려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수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 비례식 등의 초등학교 수학부터 미분 등의 고등학교 수학까지 수학의 전 분야, 즉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를 망라하여, 유머러스한 일화로 다루고 있다. 드라마 같은 설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이끌어 내 수학이 이해하기 힘든 공식의 집합이 아닌 맥락과 상황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수학자처럼 정렬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미친듯이 수식을 풀어낼 자신은 없지만 대략적인 원리로 수학을 맛 볼 호사를 오래간만에 준 책이기 때문이다. 상황별로 기가막히게 수학의 원리가 등장한다. 말그대로 상황이라 풀어야 하는 압박감은 없다. 책에서 친절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읽어 내려가면 된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범죄 수학. 리스 하스아웃. 오혜정. 지브레인. 2007.

[60] 총, 균, 쇠

■ 작가소개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풀리처 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교수로 재직중이다. 생리학으로 과학 인생을 시작한 그는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으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개국어를 구사한다. 진화 생물학이나 인류학에 관해 《디스커버Discover》 《네이처Nature》 《내추럴 히스토리Natural History》 등에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글들을 기고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저서《제3의 침팬지》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영국의 과학출판상과 미국의 LA타임스 출판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미국과학아카데미, 미국철학협회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지리학회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총, 균, 쇠》는 1998년 풀리처 상 일반 논픽션 부문과 영국의 과학출판상을 수상한 책으로 인류 문명이 대륙별, 민족별로 불평등해진 원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 밖의 저서로 《제3의 침팬지The Third Chimpanzee》《섹스의 진화Why is Sex Fun》《문명의 붕괴Collapse》 등이 있다.

■ 책 소개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총, 균, 쇠』.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그 해답을 제시한다. 특별 증보면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추가 수록하여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추적한다.

이 책은 모든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1만 3천 년 전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제국, 지역, 문자, 농작물, 총의 기원뿐만 아니라 각 대륙의 인류 사회가 각기 다른 발전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낸다. 뉴기니와 아메리카 원주민에서부터 현대 유럽인과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인간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의 문제의식은 왜 대륙마다 인류사의 발전 속도가 달라졌는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일견 인종이나 민족의 특성에 주목해 성실, 창의성, 지성, 의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답변에 천착하는 대신, 지리적 환경의 이점이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했으리란 가정을 세우고, 생물학, 언어학, 인류학 등을 넘나들며 근거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출처: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문명의 붕괴. 제러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김영사, 2005.

[61] 코스모스

■ 작가소개

저자 칼 세이건. 193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학 조교수,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조교수를 지냈다. 그 후 코넬 대학교의 행성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던컨 천문학 및 우주과학 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특별 초빙 연구원, 세계 최대 우주 동호 단체인 행성협회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자문위원으로 매리너, 보이저, 바이킹, 갈릴레오 호 등의 무인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했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저술과 방송을 통해 세계적인 지성으로 주목받았다. 그의 저서『코스모스(Cosmos)』는 지금까지 영어로 출판된 과학 책 중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30여 권의 저서 중『에덴의 용들(The Dragon of Eden)』(1978년)은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외계 생물과의 교신을 다룬 소설『콘택트(Contact)』(1985년)는 1997년에 영화로 상영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다. 평생동안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었던 그는 1996년 12월 20일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과학 교양서의 고전『코스모스』. 이 책에서 저자는 우주의 탄생과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 있는 생명이 되는 과정, 외계 생명의 존재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수 백장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곁들여 흥미롭게 설명한다.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저명한 과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난해한 개념을 명쾌하게 해설하는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는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히파티아,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다윈 같은 과학의 탐험가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과학이 이뤘고,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성과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들려준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심오한 철학적 사

색과 엮어 장대한 문명사적 맥락 속에서 코스모스를 탐구한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으로 재조명해 낸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우주의 탄생,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 있는 생명이 되는 과정, 외계 생명의 존재 문제 등을 250여 컷의 사진일러스트와 우아한 문체로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게 묘사한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바다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주의 구조. 브라이언 그린. 박병철. 승산. 2005.

[62] 침묵의 봄

■ 작가소개

저자 레이첼 카슨(1907~1964)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07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으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오늘날의 채텀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꿨는데, 1929년 졸업할 때 이 학교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보기 드문 여학생이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학위 받았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볼티모어 선>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1937~1952년 미국 어류·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는데,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시적인 산문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글을 쓰는 그녀는 1951년 《우리 주변의 바다》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셔널 북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고, 존 버로스 메달·뉴욕 동물학회의 골드 메달·오듀본 협회 메달 등을 받았다. 영국 왕립문학회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레이첼 카슨은 첫 번째 책 《해풍 아래서》를 1941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살충제 남용의 위험을 널리 알린 이 책 《침묵의 봄》을 1962년에 펴냈다. 해양생물학 관련 저서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바다의 가장자리》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척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그 위험을 경고했다. 자연사에 관한 글을 <애틀랜틱 먼슬리> <뉴요커> <리더스 다이제스트> <홀리데이> 등 유력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다. 열성적인 생태주의자이자 환경보호주의자인 카슨은 56세에 암으로 사망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침묵의 봄』. 50주년 기념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타임>지가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사람으로 뽑은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 책이다. 저자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계기로 살충제의 사용 실태와 그 위험성을 조사하고, 생물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한 환경 문제의 복잡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더불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

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생태계의 오염이 어떻게 시작되고 생물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살충제 제조업체의 행태를 지적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우리별 지구의 사랑스럽고 예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 종달새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짙레꽃 향기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내 구역의 이야기가 아닐지 몰라도 가까운 미래엔 그 대상이 나일 수가 있다. 이 섬뜩한 경고가 무섭지 아니한가?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환경정의, 니가 뭘지 알고시퍼. 환경정의연구소. 이매진. 2014.

[63] 사피엔스

■ 작가소개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플론스키 상'을 수상했고, 2011년 군대 역사에 관한 논문으로 '몬카도 상'을 수상했다. 2012년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되었고, 2018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2017년에는 《호모 데우스》가 독일 유력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가 꼽은 '가장 통찰력과 영향력 있는 올해의 경제 도서'에 선정되었다.

■ 책 소개

재레드 다이아몬드, 대니얼 카너먼, 마크 저커버그가 격찬한 베스트셀러.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인간은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과학은 모든 종교의 미래인가? 인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멀고먼 인류의 시원부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간의 역사를 다양하고 생생한 시각으로 조명한 전인미답의 문제작. 호모 사피엔스부터 인공지능까지, 역사, 사회, 생물, 종교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역사의 시간을 종횡무진 써내려간 문명 항해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

[출처: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대학이란 주입식 교육의 고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을 본격적이고 기술적으로 계발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인류학과

빅 히스토리를 결합하여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이래 20만년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전개과정을 참신한 시각과 내용으로 엮은 것이다. 인류가 지능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인지혁명, 지적인 능력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하는 농업혁명, 마침내 인간 주체성이 위험에 처할 만큼 발달한 과학혁명의 세 단계를 겪으면서 자본, 제국, 과학기술, 시장, 종교, 사회제도 등의 단어로 인지되는 현대 역사를 만들어 온 과정을 살핌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화두를 던져준다. 이 책은 우리가 방대한 지식의 축적과 결합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와 미래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촉발시켜 줄 것이다.

[김광역 (서울대 명예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채사장, 웨일북, 2019.

[64] 식물의 역사

■ 작가소개

이상태: 성균관대학교 이학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이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이학박사.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객원교수,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다. 100여 편의 식물분류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펴낸 책으로 『현대 식물분류학』, 『한국 식물 검색집』, 『식물의 역사』, 『한국의 식물 가족들』 등이 있다.

■ 책 소개

35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여 살아남은 식물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지구상에 식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오늘날 식물의 삶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등 상식을 뛰어넘는 식물들의 정교하고도 기발한 전략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또 생태적, 형태적, 분자분류적 특성을 바탕으로 식물 상호간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식물의 계통적 분류체계와 진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식물의 탄생과 진화에 관한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흥미롭게 펼쳐진다.

대학에서 식물분류학과 진화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해온 저자가 30여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우리나라 식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히말라야와 같은 전세계 다양한 서식처에서 자라고 있는 독특한 식물들을 사진을 함께 실어 재미를 더했다. 전문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명이나 복잡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따로 수록하였다. 식물을 좋아하고 식물의 기원과 근본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흥미로운 지적 탐구서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65] 수학의 확실성

■ 작가소개

모리스 클라인: 1908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브루클린, 자메이카, 퀸스에서 자랐고, 브루클린의 보이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38년부터 1975년까지 뉴욕 대학교 쿠랑 수리 과학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은퇴 후에도 쿠랑 수리 과학 연구소의 명예교수로 일하며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 책 소개

뉴욕 대학교 쿠란트 수리 과학 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했으며 다양한 수학 대중서로 이름을 떨쳤던 모리스 클라인의 대표작.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에서 시작된 서양 수학의 역사를 훑으면서 모든 지식 체계의 전범이자 다른 모든 학문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학문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수학의 흥망 성쇠를 보여준다.

총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을 지으면서 가졌던 꿈, 즉 몇 가지 확실한 공리에서 수많은 정리와 수학적 사실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거대한 연역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아이디어가 역사의 발전과 인간 지식 체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서울대학교에서 토머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등과 함께 '서울대생을 위한 고전 100선'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 이 책은 수학의 본질을 다시 되짚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엄청난 책이다. 모리스 클라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하다. 모리스 클라인은 정말 뛰어난 수학 이야기꾼이다.

[뉴욕 타임즈]

■ 함께 읽을 책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독시아디스·크리스토스 H. 파파디미트리우, 코리아, 2011.

[66] 시간의 역사

■ 작가소개

스티븐 호킹: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반 친구들과 사이에서 아인슈타인이라 불릴 만큼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남다른 실력을 보였습니다. 우주론에 관심을 갖고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한 호킹은 스물한 살 어린 나이에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 두 개뿐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수식을 계산하며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호킹 복사'라 불리는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우주 과학 동화> 시리즈는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일하게 남긴 어린이를 위한 과학 동화입니다.

■ 책 소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우주와 물질,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간결한 형태로 담아 일반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우주과학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비롯해서 소립자 물리학, 블랙홀, 초끈 이론 등 현대 물리학의 줄기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사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오늘날 가장 유명한 천체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호킹의 대표 저서다. 약 30년 전에 나온 초판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인 동시에 끝까지 읽은 독자가 거의 없다는 평판을 얻었다. 이 책은 그 뒤에 입자 물리학, 블랙홀 등의 분야에서 새로 나온 발견과 이론을 추가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넣은 개정판이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근원에 놓인 힘들은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시간은 과연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시간 여행은 가능한지 등등을 깊이 있게 성찰한 책이다. 공교롭게도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계속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이론이 쏟아져 나오는 흥미진진한 세계다. 그 첨단 세계를 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이한음 (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 함께 읽을 책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마커스 드 사토이, 반니, 2019.

[67]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 작가소개

윌리엄 브로드:

'뉴욕타임스'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다. 1983년부터 과학 관련 기사를 쓰면서 두 차례 풀리처상을 받았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과학 분야의 기사상을 수상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과학사를 공부했으며, 관심 영역은 우주, 군사 무기, 과학 사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지은 책으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신탁: 고대 델포이의 잃어버린 비밀과 감춰진 전언> 등이 있다.

■ 책 소개

<뉴욕타임스> 과학전문 기자들의 생생하고도 집요한 보고서. 조작, 날조, 표절 등 과학에서 일어나는 기만행위를 통해 과학계의 실상을 구조적으로 파헤치는 책. 과학사에 나타난 여러 기만행위 사례를 통해 이런 과학관이 실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책의 사례들에 따르면 과학자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개인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과학지식이 생산·보급되는 과정에는 수사(rhetoric), 선전, 계략 등의 비합리적 요소가 빈번히 개입한다. 또한 과학 기만행위는 동료평가와 실험 재연 등의 공식 체계를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내부의 동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될 뿐이다.

책은 과학 기만행위가 희귀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닌데도 전통적 과학관이 이를 부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들이 내놓은 기만행위 방지책은 연구에 실제로 공헌한 사람들만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논문의 모든 내용에 책임을 지며, 논문의 양보다 질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황우석 교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과학 사기와 관련된 책과 칼럼들이 흥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아쉽게도 '왜 과학에서 부정 행위들이 그치지 않는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책이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책들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은, 무엇이 과학 기만 행위를 낳는지, 연구자 개인의 윤리만으로 결코 시정될 수 없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전통적 과학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대과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행했다는 점이다.

[웁긴이 김동광 후기]

■ 함께 읽을 책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사이언스북스, 2019.

[68] 객관성의 칼날

■ 작가소개

찰스 길리스피: 프린스턴 대학 데이턴-스톡턴 유럽사 명예교수. 1956년부터 프린스턴 대학에서 토머스 쿤 등과 함께 교수로 재직했다. 주된 관심 영역은 18~19세기 과학이며 특히 계몽시대와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뛰어난 저술을 남겼다.

■ 책 소개

기호와 수식으로 차있는 텍스트와 실험실에서 몸으로 때우는 작업에 익숙해 있는 과학도나 공학도가 문자 중심의 인문학에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이 그나마 인문학 쪽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라는 인문학적 틀을 빌려 과학기술을 바라보려는 과학기술사다. '과학사상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서양과학의 전개 과정을 각 시대 사조 속에서 독창적인 인간들이 벌이는 활동으로 조명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하라 시리즈 저자)]

■ 함께 읽을 책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사이언스북스, 2019.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까치, 2013.

[69] 뇌로부터의 자유

■ 작가소개

마이클 가자니가; 샌타바버라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인지 신경과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이다. 저서로는 『뇌, 인간의 지도』 『왜 인간인가?』 등이 있다.

■ 책 소개

인지신경과학의 창시자이자 대가인 마이클 가자니가가 "뇌"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다. 뇌과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토대로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다가가는 시각과 현대 과학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 자신이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인데도 최신 뇌과학부터 심리학, 인류학, 물리학, 윤리학을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진 뇌 결정론의 허상을 폭로하고 도발적으로 주장한다. "우리는 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인간은 뇌 이상의 그 무엇으로, 뇌를 넘어서야 "진짜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은 현대 범죄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허무맹랑한 의견들을 향한다. 특히 저자는 자유의지와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뇌 자체에서 무의식적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뇌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창발 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증명해나간다. 이러한 허상에 대한 폭로와 증명 끝에는 저자의 주제인 '자아'의 중요성과 개인의 책임 강조가 뚜렷하게 새겨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이자 사상가로까지 불리는 마이클 가자니가가 최신 뇌과학부터 심리학, 인류학, 물리학, 윤리학을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뇌 결정론의 허상을 폭로한다. 인간은 뇌 이상의 그 무엇으로, 뇌를 넘어서야 진짜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특히 자유의지와 책임은 개인의 뇌 자체가 아니라 둘 이상의 뇌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창발 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꼼꼼하게 증명하고, 범죄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뇌의 이상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에 우려를 표한다. 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인간이라면 대부분 사회적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 처벌 문제를 두고 논의할 때 곱씹어볼 만한 주장이다.

[출처: 출판사 추수밭 제공]

■ 함께 읽을 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 연린책들, 2019.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다산초당, 2020.

[70] 이기적인 유전자

■ 작가소개

리처드 도킨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찰스 시모니 교수직'의 초대 교수를 지냈다. 왕립학회 회원으로 과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다수의 명저들을 통해 종교의 비합리성과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역설해왔다. 대표작으로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 등이 있다. 2013년 「프로스펙트」가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뽑은 세계 최고 지성 1위를 차지했다.

■ 책 소개

『이기적 유전자』는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 과학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기의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혁신적인 통찰에 더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뛰어난 문장력과 명쾌한 구성력 또한 보여 주는 이 책은 명실상부 과학 교양서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기에 손색이 없다. 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은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과학 책을 넘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 독자들도 40년이라는 세월의 검증은 거치며 그 중요성과 깊이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정받은 『이기적 유전자』의 최신 판본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40주년 기념판에 새롭게 수록된 에필로그에서 도킨스는 여전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타당성을 이야기하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긴다. 새로운 에필로그를 수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디자인과 휴대하기 좋은 판형으로 갈아입은 40주년 기념판을 통해 독자들은 『이기적 유전자』가 주는 울림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를 연장한 개념인 ‘میم’(문화유전) 이론과 후속작 『확장된 표현형』의 선구적인 개념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킨스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요 쟁점(성의 진화, 이타주의의 본질, 협동의 진화, 적응의 범위, 무리의 발생, 가족계획, 혈연선택 등)과 방대한 현대 연구 이론과 실험(게임 이론,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의 실험, 죄수의 딜레마, 박쥐 실험, 꿀벌 실험 등)을 보여 준다.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사회생물학의 논쟁이 되었던 유전적 요인과 환경 문화적 요인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출처: 출판사 을유문화사 제공]

■ 함께 읽을 책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2006.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총,균,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 2005.

[71] 왜 로봇의 도덕인가

■ 작가소개

콜린 알렌: 인디애나 대학교의 과학철학사 및 인지과학 교수. 196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교를 거쳐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리학 및 언어철학을 공부했지만 좋은 철학은 좋은 과학에서 나오며 두 학문을 분리하는 것은 인위적이라고 믿는 그는, UCLA에 있으면서 인공 지능을 연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도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신기술 이슈에 전념했다.

■ 책 소개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로봇의 도덕성은 각종 서비스 로봇, 전투병 로봇, 개인화된 검색엔진 기술,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 등 지능 기계의 출현으로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감독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을 포함한 모든 지능적 기계의 지침이 될 윤리적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책은 로봇 윤리라는 신흥 분야에 관한 최초의 입문서이자 로봇의 도덕에 관한 포괄적인 안내서다. 예일 대학교의 '생명윤리를 위한 학제간 센터'의 윤리학자와 인디애나 대학교의 인지과학 교수가 공저한 이 책은, 공상과학 소설의 통속적 화두에서부터 첨단 로봇공학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왜 로봇의 도덕에 관한 연구가 지금 필요하며 그것에 관련된 기술적 사안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그간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기계의 도덕성은, 개인화된 검색엔진기술, 조만간 상용화될 무인자동차, 인간과 공존하게 될 서비스로봇 등 지능 기계의 출현으로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계의 도덕'은 이러한 지능적 존재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며, 과학기술에서 인문과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김홍석 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연구실용화그룹 수석연구원]

■ 함께 읽을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문예출판사, 2000.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숲, 2013.

[72] 골렘: 과학의 뒷골목

■ 작가소개

트레버 핀치: 코넬 대학교 과학기술학과와 사회학과 겸임 교수이며, 바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요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위비 바이커와 더불어 EPOR을 기술사회학에 접목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SCOT)을 제안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술사회학에서 사용자(user)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책 소개

이 책은 과학적 연구 결과의 수용 및 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7가지 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황우석 교수 논문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참고서적이 될 것이다.

7가지 사례 중에는 상대성 이론 검증 실험이나 파스퇴르의 세균 배양 실험 같은 유명한 연구에서부터, 상온(常溫) 핵융합, 중력파나 태양 중성미자 검출 처럼 신문의 과학면에서 봤음직한 연구, 그리고 채찍꼬리도마뱀의 성행동에 대한 해석과 같이 과학계에서조차 극히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연구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학의 '뒷골목'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정직한 학문의 세계라 믿었던 곳에서조차 정치적 술수와 음모, 사실 조작은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다. 심지어는 연구자에 대한 과학계의 호오에 따라 연구 성과가 좌지우지 되기도 했다고 책은 말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의 도발적인 문제 제기는 과학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 책은 이른바 '과학 전쟁'이라는 것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되었다. 전문 과학연구자가 아닌 '국외자'로서 과학사회학 연구를 진행해온 두 저자가 쓴 이 책은,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을 밖에서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과학의 안으로 들어가 그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또다른 과학 전쟁이 진행 중인 우리의 상황에서 이 책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출판사 새물결 제공]

■ 함께 읽을 책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출판, 2002.

제 3의 침팬지,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 2015.

[73] 생명의 느낌

■ 작가소개

이블린 폭스 켈러: 양자물리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공부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 특히 '여성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정립시킨 대표적 인물로, MIT 대학에 STS(과학과 기술과 사회) 학과를 설립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성찰의 지평을 열었다. 과학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독특한 할머니 과학자의 삶에 주목해 안식년을 꼬박 매달려 이 책을 출간한 직후, 그 주인공 매클린톡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신비로 불리던 그녀의 과학적 방법론에 다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유기체와의 교감』은 과학사회학의 필독서가 되어 여덟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 책 소개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전문용어들과 관련 내용들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치명적 약점이다.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리듬'을 타는 것인데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에는 리듬이 자주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단념하기엔 너무 아까운 책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고고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지 않은가. 분명 내용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약간 버거운 생물학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이야기들은 가뿐히 용어들을 뛰어넘는다.

바바라 매클린톡이라는 여성과학자의 삶을 다룬 책인데,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녀의 업적이지만 포커스는 의외로 꽤 많은 부분 그녀의 사회성에 맞추어져 있다. 결코 착하고 원만한 성격의 고분고분한 여자는 아니었던 그녀에 대한 평가를 과연 누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자 역시도 객관성을 담보하지않았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매클린톡은 온통 시장판이고 투기장 같은 과학계를 꼬집었다. 누가 무슨 상을 받았고, 누가 무슨 특허를 내서 얼마 돈을 벌었고, 얼마짜리 프로젝트를 따냈고, 돈이 없어 뭐를 할 수가 없고, 성과 위주의 압력 때문에 꼭 도박장에 모인 투기꾼들처럼 모두들 서로에게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바라 매클린톡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과학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통로를 언제라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삶, 자연, 우주를 대하는 다른 시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온 방식,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세태에서 결국 형식과 절차, 명예만이 존중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다. 그녀는 생명과 자연을 사랑한 진정한 과학자였으며 인간이었다.

[출처: 출판사 양문 제공]

■ 함께 읽을 책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18.

바이러스 쇼크, 최강석, 매일경제신문사, 2020.

[74] 게놈

■ 작가소개

매트 리들리: 영국 출생의 저널리스트, 사업가, 대중 과학 저술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과학 전문 기사를 거쳐 1993년부터는 일간지 <데일리텔레그래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과학, 환경, 경제 분야의 글을 썼다. 『이타적 유전자』, 『본성과 양육』, 『이성적 낙관주의자』, 『붉은 여왕』 등의 저서가 27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책 소개

유전자 그리고 인간 게놈은 이제 완전히 과학계의 대스타가 되었다. 이미 게놈은 자신에 대한 소식만 다루는 팬 과학저널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며, 내셔널휴먼게놈리서치연구소와 사기업인 셀레라 제노믹스를 포함해 여러 곳에 자신만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소유하고 있다. 과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게놈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마치 마돈나의 다음 앨범처럼 열광적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만큼 불치의 병 정복과 생명 연장 등 게놈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파괴력의 새로운 가능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양이 있으면 음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생명 기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 게놈의 암호가 하나둘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운명 결정론과 우생학 등에 사로잡혀 생명 경시, 인간 차별, 생태계 파괴 등을 일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윤리적 논쟁까지 벌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게놈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하는 때이다. 게놈의 한 측면만 바라보고 장단점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게놈의 자화상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또 게놈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나 의사, 정부, 경제 단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DNA, RNA, 세 문자로 된 유전암호가 어떻게 진화 하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냈는지, 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고릴라와 침팬지와 갈라지면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유전적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또 호메오유전자는 하나의 세포에서 어떻게 인간 전체 몸의 발생을 유도하는지를 알게 된다. 노화와 불멸의 삶에 초점을 맞춰 텔로메라아제라는 유전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인간은 텔로메라아제가 없어지면서 노화한다. 반대로 말하면 텔로메라아제를 첨가하면 어떤 세포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유전자를 통해 어떤 인종 그룹에서 유방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 이전에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또 언어와 유전자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거기에 질병, 지능, 언어, 기억, 개성, 자유의지에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현재는 유전자 감식이 범죄와 친자 확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들리는 유전자가 많은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유전자가 인간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전자 이용에 대한 결정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공: 출판사 반니 제공]

■ 함께 읽을 책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세종연구원, 2015.

칼날 위의 역사, 이덕일, 인문원, 2015.

[75] 엔트로피

■ 작가소개

제러미 리프킨: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이다. 그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책은 『엔트로피』다. 기계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에너지의 낭비가 가져올 재앙을 경고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 개념이었다. 그 후 그는 『노동의 종말』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라 경고하는가 하면, 『소유의 종말』 통해서는 소유가 아닌 '접속'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는 경제학, 국제관계학 외에 정식으로 과학 교육을 받은 바는 없다. 이런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그의 이론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실 비판은 여전히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 책 소개

'물질이 열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때 변화된 온도를 열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쓸 수 없게 된 에너지'를 뜻하는 엔트로피는 가용 에너지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를 통해서 역사를 진보로 보는 시각을 무너뜨리고, 과학과 기술이 보다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해준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제러미 리프킨의 저술은 시기적절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뚜렷한 인도주의적 토대 위에 서 있다. 개인의 책꽂이든 도서관의 서가에서든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삶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오늘날 꼭 필요한 계명을 전파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사람들의 마음가집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니콜라스 조르제스크-레겐]

■ 함께 읽을 책

3차 산업혁명. 제러미 리프킨 저, 안진환 역. 민음사. 2012.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8.

[76] 1984

■ 작가 소개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er Blair). 1903년 6월 25일, 인도의 벵골 주 모티하리에서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 때 사립 예비학교에 들어갔으나, 이곳에서 상류층 아이들과의 심한 차별을 맛보며 우울한 소년시절을 보냈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이튼교에서의 학창시절 역시 계급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했으나 점차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가 작가수업을 쌓았다. 『1984년』은 오웰을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날로 악화되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작품을 발표한 이듬해인 1950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책 소개

『1984년』은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작품의 무대인 오세아니아는 전체주의의 극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나라이다.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정치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런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을 꾀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결국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조지 오웰의 대표작 『1984』 출간 당시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미래에 대해 예언한 소설이라고 평했다. 1949년 6월 12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올해 출간된 작품 중 『1984』는 가장 동시대적인 작품”이라고 실렸을 정도로 작품에 담겨 있는 시사적인 함의도 뚜렷했다. 오웰은 이 작품을 1948년에 완성했는데, ‘1984년’이라는 제목은 ‘48’을 뒤바꾼 것이라고 한다. 비록 1984년은 과거가 됐지만 21세기인 지금도 그의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묵직하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올더스 헉슬리 저, 이덕형 역, 『멋진 신세계』, 문예출판사, 1998.

[77] 연어

■ 작가 소개

안도현(安度眩)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낙동강>이,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같은해 전북 이리중학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하였으며, 이듬해 첫 번째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출간하였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지 5년만에 복직되었으며,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 전업작가가 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책 소개

소설 같은 동화이면서 동화 같은 소설인 [연어]는, 은빛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여행길에서 삶의 본 질과 존재의 아픔을 묻는 무게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모천으로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꿈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됨으로써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은빛연어의 깨달음은 삶의 겸허한 풍경을 이룬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시인 안도현의 섬세한 시적 감수성이 산문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작품이다. 연어의 모천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시인은 깊은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은빛연어' 한 마리가 동료들과 함께 머나먼 모천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누나연어를 여의고 '눈맑은 연어'와 사랑에 빠지고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내용의 <연어>는 숨지기 직전 산란과 수정을 마치는 연어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이 시적이고 따뜻한 문체 속에 감동적으로 녹아 있어 그윽한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양투안 드 생텍쥐베리 저, 황현산 역, 『어린왕자』, 열린책들, 2015.

[78] 섬진강

■ 작가 소개

김용택(金龍澤) 전라북도 임실 진메마을에서 태어나 순창농고를 졸업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교사시험을 보고 스물한 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교직기간동안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었다. 섬진강 연작으로 유명하여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시집으로 『섬진강』 『맑은 날』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리운 꽃편지』 『강 같은 세월』 『그 여자네 집』 『그대, 거침없는 사랑』 『그래서 당신』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작은 마을』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섬진강 이야기』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인생』 등이 있다. 이밖에도 장편동화 『옥이야 진메야』, 성장소설 『정님이』, 동시집 『콩, 너는 죽었다』 『내 똥 내 밥』, 동시연음집 『학교야, 공 차자』, 시연음집 『시가 내게로 왔다』 등 많은 저작물이 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을, 1997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책 소개

김용택의 첫 시집. 우리 농촌의 토속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개발시대를 맞아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정한을 서정적인 시어로 형상화했다. 부박한 시대에 보기 드문 맑은 서정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거기에서만 우리나라를 수 있는 강인한 가락으로 해체되어가는 오늘의 농촌공동체를 아프게 투시하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섬진강」 연작 1~20을 비롯하여 모두 3부로 나뉘어 51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김용택은 시골에 머무르면서 글을 쓰고 있는 보기드문 작가이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곳에서 쓰여지는 작품들이 쉽게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또한 일반에게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용택의 글 속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자연이 등장하고 있으며 어김없이 그들은 글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글을 쓰며 호흡하는 김용택은 아이들과의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과 교감하며 세상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작품은 어엿한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한다. (『촌아, 울지마』) 또한 김용택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숨겨진 진실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직관적인 시선에 감동받으면 자신의 글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신동엽 저, 『깍뎀기는 가라』, 시인생각, 2013.

[79]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작가 소개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1929년 체코의 브륀에서 야나체크 음악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밀란 쿤데라는 그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프라하의 예술아카데미 AMU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 수업을 받았다. 1963년 이래 「프라하의 봄」이 외부의 억압으로 좌절될 때까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했으며, 1968년 모든 공직에서 해직당하고 저서가 압수되는 수모를 겪었다. 『농담』과 『우스운 사랑』 2권만이 쿤데라가 고국 체코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밀란 쿤데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다. 지혜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그의 작품으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생은 다른 곳에』 『불멸』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 『이별』 『느림』 『정체성』 『향수』 등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탁월한 문학적 깊이를 인정받아서 메디치 상, 클레멘트 루케 상, 유로파 상, 체코 작가 상, 컴먼웰스 상, LA타임즈 소설상 등을 받았다. 미국 미시건 대학은 그의 문학적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 책 소개

역사의 상처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존재의 가벼움을 느껴 보지 못한 현대인, 그들의 삶과 사랑에 바치는 소설.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쪽이 옳은가. 니체의 영원한 재귀는 무거움이지만 실제요, 진실이다. 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기에 비교도 반복도 되지 않아 깃털처럼 가볍다. 질투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약한 테레자, 사비나의 외로운 삶. 토마시에게 테레자는 무거움이요 사비나는 가벼움이다. 일인칭이면서 전지적이요 직선이 아닌 반복서술,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의 와해, 그런 메타포에서 탄생한 인물들. 쿤데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매끄러움과 개연성을 거부하는 실험적인 기법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아픔과 삶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소한 우연이든 의미심장한 우연이든,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쿤데라는 베토벤의 곡을 빌어 해답을 찾고자 한다.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알랭 드 보통 저, 정영목 역,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청미래, 2007.

[80] 죄와 벌

■ 작가 소개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러시아의 심리학자이자 소설가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세계에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를 종교·철학·사상적 관점에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20세기 문학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며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심리적 통찰력으로, 특히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20세기 소설 문학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모스크바 말린스키 시립병원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 몇 분 전에 특사를 받은 바 있었고, 4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생활과 불치의 간질병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곡과 고난을 다 겪으며 살았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인간 내면의 추악함에만 집착하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과 궁극적인 정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집필한 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상적 기초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순되는 선과 악의 투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책 소개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급박한 상황 속에서 속기사인 안나 그리고리에브나의 도움으로 1866년 1월부터 12월에 걸쳐 '러시아 통보'에 연재된 뒤, 1867년에 약간을 수정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작가로서 명실공히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후기 5대 장편 가운데 첫 작품이다. <죄와 벌>은 겉으로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탐정 소설의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 무엇보다도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며 있으며, 이성과 감성, 선과 악, 신과 인간, 사회 환경과 개인적 도덕의 상관성, 혁명적 사상의 실제적 문제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8년간의 유형 후 발표한 대작. 이성의 광기 속으로 침잠하는 자폐적 인간, 고뇌하는 청춘의 전형 '라스콜니코프'를 창조해 냄으로써 20세기 문학, 철학, 심리학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소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맹은빈 역, 『전쟁과 평화』, 동서문화사, 2008.

[81]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작가 소개

조세희(趙世熙)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뚝대 없는 장선」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나, 문단의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5년 난쟁이 연작의 첫 작품인 『칼날』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1976년 난쟁이 연작 『뫼비우스의 띠』 『우주공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을 발표하였으며, 1977년 역시 난쟁이 연작 『육교 위에서』 『궤도회전』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등을 발표하였다. 1978년 『클라인씨의 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필로그』를 이전의 난쟁이 연작과 함께 묶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집을 출간하여,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함께 이룬 문제작으로 주목 받았다.

■ 책 소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모순에 정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 난쟁이는 정상인과 화해하며 살 수 없는 대립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1970년대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였던 빈부와 노사의 대립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1970년대가 이 두 대립항의 화해를 가능케 할 만큼의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그려내고 있는 난쟁이 연작에 환상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계급적인 대립과 갈등이 마치 비논리의 세계나 동화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의 냉혹함은 더욱 강조된다. 난쟁이 연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소설이 종래의 단편 형식으로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장편 양식으로 현실을 개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주제와 양식과 기법에 대한 도전과 그 성과는 1970년대 문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1970년대 우리 인문주의와 심미적 이성의 한 절정을 보여준 한국문학의 대표작, 1978년 6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장장 18년간 40만 부가 팔린 이 책은 최인훈의 『광장』과 함께 우리 문단 사상 가장 오래도록 팔린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양귀자 저, 『원미동 사람들』, 쓰다, 2012.

[82] 광장

■ 작가 소개

최인훈(崔仁勳) 1936년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서 8.15 해방 이후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어 원산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하여 목포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법대에 재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1959년 《자유문학》에 「그레이구락부전말기」와 「라울전」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이후 「9월의 다알리아」, 「우상의 집」, 「가면고」 등을 발표하였고 1960년 11월에 《새벽》에 중편소설 「광장」을 발표하였다. 1994년에는 자기 존재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한 자전적인 장편소설 「화두」를 발표하여 이산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동인문학상과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장려상, 서울 극평가그룹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1979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출간하였다.

■ 책 소개

<광장>은 분단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고뇌하던 청년의 모습을 그린 장편소설. 전후의 문제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한 지식인의 외로운 자기성찰을 밀실과 광장, 즉 남과 북의 대비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려 제3국을 택했던 석방 포로 이명준이 끝내 자살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그린 작품이다. 「광장」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논의되기가 어려울 만큼 1960년대의 사회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설이다. 작품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작가는 “구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사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가가 말하고 있듯이 「광장」은 바로 1960년대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광장」은 최인훈 소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소설로서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한 최초의 소설이자 전후문학을 마감하고 1960년대 문학의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김승옥 저, 『무진기행』, 문학동네, 2004.

[83] 토지

■ 작가소개

박경리: <토지>는 1969년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하여 1972년 9월까지 1부를 집필했다. <토지> 2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문학사상>에 3부는 1978년부터 <주부생활>에 4부는 1983년부터 <정경문화>와 <월간경향>에 각각 연재했다. 마지막 5부는 1992년부터 <문화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94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하소설 <토지>의 전작이 완결되었다. 25년에 걸쳐 원고지 4만 장 분량으로 탈고된 것이다. 한말로부터 식민지 시대를 꿰뚫으며 민족사의 변전을 그리고 있는 대하소설 <토지>는 탈고 전에 이미 한국문학의 걸작으로 자리잡았고 박경리는 한국문학사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거봉으로 우뚝 섰다. 이 소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1979년과 1984년에 각각 한국방송공사에서, 2004년에 SBS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그녀가 1980년부터 1994년 8월 15일까지 원주시 옛집에서 <토지>를 지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토지문학공원이 조성되었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토지문화관에서 집필생활을 하였다.

■ 책 소개

43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박경리의 <토지>. 이번 마로니에북스판 <토지>는 <토지> 출간 이후 43년 동안 연재와 출판을 거듭하며 와전되거나 훼손되었던 작가의 원래 의도를 복원한 판본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토지>는 한국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969년에서 1994년까지 26년 동안 집필되었으며, 그 크기만 해도 200자 원고지 4만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무수한 역사적 사건과 민중들의 삶이 고스란히 <토지>에 담겨 있다. 한마디로 '소설로 쓴 한국근대사'라 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토지』에는 평사리의 대지주인 최참판댁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동학혁명,

식민지시대,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한 많은 근현대사가 폭넓게 그려져 있다.

당시 사회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인물들과 반세기에 걸친 장대한 서사, 그리고 참다운 삶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등은 작가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만나 한국문학에 큰 획을 그은 『토지』로 태어났다. 국내를 넘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국외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조명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라 하겠다.

[출처: 출판사 마로니에북스 제공]

■ 함께 읽을 책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7.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시공사, 2020.

[84]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 작가소개

진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0년 『문학과 사회』 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문학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흠쳐가는 노래』와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시시하다』,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 책 소개

2000년 「문학과사회」에 '커다란 창고가 있는 집' 외 3편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진은영의 첫 번째 시집. 시인은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를 짓는다. 허나 '모든 표정이 사라진 세상'에 '너'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막 심어진 묘목이 파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치듯, 조심스레 손가락을 내어밀어 적은 시편들이 담겼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추천의 글

언제부터인가 내 삶이 엉터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엉터리라는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너라도 이 경계를 넘어가주었으면 .

그래서 적어도 도달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혹은 누군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존재 증명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길..... 사람들은 왜 내겐 들을 수 있는 귀만을 허락했냐고 신에게 한바탕 퍼붓는 살리에르의 한탄과 비애를 전하지만 , 사실 얼마나 배부른 소린가? 모차르트와 동시대인이라는 거, 그거 축복 아닐까?

돌이 아니라, 쏟아지는 별들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행복.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인가?

친구, 정말 끝까지 가보자. 우리가 비록 서로를 의심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증오할지라도.

[출판사 제공 책소개]

■ 함께 읽을 책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지혜, 2015.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열림원, 2014.

[85] 위대한 개츠비

■ 작가 소개

F.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자전적 소설인 『낙원의 이쪽』(1920)을 발표하면서 비평가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25년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면서 일약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1935년까지 네 권의 단편집을 출간하였으며 무수한 잡지에 실린 그의 단편은 총 160여 편에 이른다. 1940년 『마지막 거물』을 집필하던 중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출처 : 인터넷 알라딘 제공]

■ 책 소개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일명 재즈 시대라고 불리는 1920년대로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의 승리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전쟁의 참화를 직접·간접으로 체험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아 프랑스로 떠났다. 미국 중서부 노스다코다 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개츠비는 대단한 야심가로 입신 출세를 꿈꾼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대위로 임관되어 참전하였고, 테일러 기지에 주둔하던 중 교양 있는 상류층 여인 데이지 데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그는 해외로 파병되었고, 종전 후 한시라도 빨리 귀향하려고 했으나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옥스퍼드로 파견된다. 개츠비가 돌아오지 않아 초조해하던 데이지는 한시바빠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카고 출신의 부호와 결혼해버린다. 주인공 개츠비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고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청춘을 전부 바친다. 그러나 끝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고 만다. 이러한 개츠비의 비극적인 생애를 묘사한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사회를 무대로 미국인들의 꿈이 일그러지고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놀라운 시적감각으로 보여준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작품은 미국의 192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의 사회상을 실감나게 묘사한 수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존 스타인벡 저, 김승욱 역, 『분노의 포도』, 민음사, 2008.

[86] 백 년 동안의 고독

■ 작가소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현실과 환상, 역사와 설화, 객관과 주관의 황당할 정도로 뒤섞여 있지만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현실을 보다 날카롭고 깊이있게 드러내는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대중적 인기, 상업적 성공을 함께 거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의 주제와 본질적 기교는 그의 성장 배경과 삶의 과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마르케스는 기괴한 것을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주의와 결합시키는 자신의 서술 방식과 지역 신화 및 전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모두 외할머니 덕분으로 돌린다. 한편 외할아버지는 1890년대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내전에 참가했던 인물로서 외손자인 마르케스가 위대한 등장 인물을 창조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 책 소개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마술적 리얼리즘의 극치를 보여 주며 일단 한 번 잡기 시작하면 끝까지 손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소설이다. 창세기의 역사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융합하여 인류 최후의 비극적 서사시를 빚어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알려면 딱딱한 역사책 대신 《백 년 동안의 고독》을 읽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사회적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소설의 이야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사촌 여동생 우르슬라와의 근친상간적 결혼생활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남미의 처녀림 속에 마콘도라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데, 이 원시적인 마을은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한 도시로 발전했다가 무지개처럼 하루아침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부엔디아 가문과 등장인물 개인의 고독은 결국 빠져나갈 수 없는 돌고 도는 역사로 인한 고독이다. 이미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에 돼지 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우선 <백년 동안의 고독>은 역사적 의미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콜롬비아의 과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콜롬비아의 역사는 곧 식민지 종주국들의 지배와 억압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역사나 크게 다름없었다. 라티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하였듯이 콜롬비아 또한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패배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6세기 중엽부터 콜롬비아는 뉴그라나다라는 스페인 식민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스페인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독립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연금술사, 파울로 고엘료, 문학동네, 2001.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바스콘셀로스, 동녘, 2003.

[87] 주홍글씨

■ 작가소개

너새니얼 호손: 1804년 7월 4일에 매사추세츠 주의 세일럼에서 태어났다. 17세기의 청교도를 선조로 모신 가정이었으므로 청교도 사상, 생활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썼다. 보든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시인 롱펠로와 호라티오 브리지 및 프랭클린 피어스와 생애의 친구를 맺었으며 1828년 최초의 소설 『팬쇼 Fanshawe』를 출판했으나 뒤에 미숙한 작품임을 깨닫고 회수해버렸다. 그 후에 그는 세일럼에 있는 어머니의 조용한 집에 틀어박혀서 문학수업을 했다. 1853년 영국의 리버풀 영사로 부임했으며, 그 후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이 여행 뒤에 목신이 죄를 짓고 비로소 지성과 양심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대리석의 목신상 The Marble Faun』(1860)을 집필하였다. 귀국 후 영국 체재기를 정리한 『우리들의 고향』(1863)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다. 청교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전통을 계승한 호손은 범죄나 도덕적 종교적 최악에 빠진 사람들, 자기 중심적, 고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생활을 도덕, 종교, 심리의 세 측면에 비추어 엄밀하게 묘사했다. 상징적, 우회적 수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수법은 H. 멜빌, H. 제임스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책 소개

1850년에 출판된 너새니얼 호손의 첫 번째 장편 소설 [주홍글씨]는 청교도주의의 인습적 도덕사회에서 애정도 없이 늙은 학자와 결혼한 헤스터 프린이 뉴잉글랜드라는 신세계에서 젊은 목사와 불륜의 관계로 인해 냉혹한 제재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윤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이란 말은 이 소설이 상징으로 시작해서 상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주인공인 헤스터 프린의 가슴에 시종일관 붙어 다니는 주홍글씨 A자는 Adultery의 머릿글자로 간음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 글씨는 헤스터의 굴할 줄 모르는 참회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주의 A자로부터 Able(유능함)의 A자로, 심지어는 Anger(천사)의 A자로 승화되어간다. 지은 이 호손은 초기 청교도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알레고리적 인생관을 과감히 묘사하여 위대한 역사소설을 창조했으며 이 소설은 미국 문학 사상 첫손 꼽히는 고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죄와 인간에 따뜻한 시선 보내는 미국 근대문학의 위대한 고전 - 허연 (시인, 매일경제 문화부 팀장)

[출처: 인터넷 알라딘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 모음, 2012.

위저트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2009.

[88] 멋진 신세계

■ 작가소개

올더스 헉슬리: 광범위한 지식뿐 아니라 뛰어나고도 예리한 지성과 우아한 문체에 때로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소설가이자 비평가. 1894년 7월 26일 서리 지방 고달밍에서 토머스 헉슬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지적 정보와 함께 재치와 풍자로 가득 찬 다양한 방면의 저술 활동으로 유명한 헉슬리는 20세기 관념소설의 큰 줄기를 이룬 대표적 작가다. 소설가로서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그 외에도 수필, 전기, 희곡, 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 책 소개

올더스 헉슬리의 예언적 소설 『멋진 신세계』는 금세기에 미래를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 중의 하나다. 현대식 에덴동산에서의 삶을 그린 이 이야기는 자유와 도덕 개념이 낡은 낡아가 되어버린 현대 문명사회를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그 속에 내포된 위험을 경고한다. 뼈아프게 비판하고 고결하게 지키려는 헉슬리의 웅변적인 인간 선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헉슬리는 야만인 청년 존을 통해 두 세계, 즉 유토피아 세계와 원시 세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상을 병립시켜 보여준다. 오로지 최대의 능률과 발전만을 목표로 삼는 현대 과학 문명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곧 도래할 섬뜩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는 무엇이 참된 이상향이며, 우리들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출처: 소담출판사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1984, 조지 오웰, 민음사, 2003.

[89] 예술이란 무엇인가 - 예술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11가지 개념

■ 작가소개

1) 볼프강 울리히(Wolfgang Ullrich): 독일 뮌헨에서 철학, 미술사, 독어독문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뮌헨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였고,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카를스루 조형예술 전문대학에 초빙교수로 있었으며, 2006년부터 카를스루 조형예술 전문대학에서 예술학과 매체 이론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미술 숭배', '낮게 그림 걸기, 미술과 관계 맺기에 대하여' 등이 있다.

2) 역자 조이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베를린 훔볼트에서 미술사와 젠더학을 공부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이한, 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 '위험한 미술관,' '그림, 눈물을 닦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이 그림은 왜 비쌀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책으로 예술가, 철학자들이 자신의 예술을 어떻게 파악했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예술의 패러다임을 흔든 11가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안에서 예술의 개념, 예술의 특성, 예술의 개념과 작품의 관계, 예술사의 형성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예술을 개념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구한 예술의 역사에서 많은 예술가, 철학자, 미학자가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으며, 그 결과 도전자들은 우리에게 예술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남겼다. 이 책은 지난 4세기 동안 예술을 규정하려 했던 11가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알 수 없는 그 무엇',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선',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종말' 등 예술을 설명하려는 갖가지 개념들이 소개된다. 이 개념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술의 개념사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예술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 11가지 개념들

은 예술이란 무엇인지, 예술가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 각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수용했는지 등을 물음으로써 예술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출판사 서평).

이 책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 종교가 된 예술 의식, 미학적 엄격주의가 발휘하는 유혹의 힘, 예술은 어디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가 등과 같은 내용을 통해 예술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가지는 실제 예술작품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술사의 흐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술치료학과 김동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술철학사 이광래, 미메시스, 2016.

[90] 뮤지코필리아: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

■ 작가소개

(1) 올리버 섉스(Oliver Wolf Sacks): 1933년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 마운트시온병원과 UCLA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콜롬비아대학 신경학, 정신의학 교수, 영국 워릭대학교 객원교수,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네이버). 뉴욕타임스가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고 불렀으며 의사이자 문필가로 ‘루이스 토머스 상’을 받기도 했다. 저서로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깨어남’, ‘나는 한 목소리를 보네’, ‘영클 텅스텐’, ‘오악사카 저널’, ‘온 더 무브’ 등이 있다.

(2) 역자 장호연: 신경과 의사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함춘의학상, 우수의학과학자상, 분취의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뇌에 관해 풀리지 않는 의문들’, ‘신경학 교과서’, ‘뇌졸중의 모든 것’, ‘뇌졸중 119’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뮤지코필리아: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는 음악과 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본인이 경험한 음악의 힘을 실제 자신이 만난 신경증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무의식적으로 음악을 인식하며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음악과 뇌의 관계, 음악의 힘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알마 출판사 제공]

■ 추천의 글

인간은 언제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까? 하루라도 음악을 듣지 않는 날이 있을까? 지금처럼 음악이 과도하게 소비되던 때가 있었을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한없이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음악도 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음악, 살이 빠지게 해주는 음악,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음악, 태교에 음악이 좋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구매욕을 자극하는 음악도 있어 매장 안에 그 음악을 틀어두면 매출이 좋아진다고도 한다.

때로는 추억의 한 장면에 음악이 함께 기억되어 음악이 기억을 불러내고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듯 보인다. 음악이 가진 힘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출판사 서평).

‘뮤지코필리아: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로운 음악적 현상과 경험을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개 맞고 갑자기 음악을 사랑하게 된 남자,’ ‘음악 공포증: 음악유발성 간질,’ ‘뇌벌레, 끈질기게 들러붙는 음악, 귀에 속 들어오는 선율,’ ‘음악 환청,’ ‘코 푸는 소리가 ‘사’음으로 들려요: 절대음감,’ ‘음악 서번트,’ ‘실어증과 음악 치료,’ ‘파킨슨병과 음악 치료,’ ‘음악, 광기 그리고 우울증,’ ‘너무나 음악적인 사람들: 윌리엄스 증후군,’ ‘치매와 음악 치료’ 등이 있다

[예술치료학과 김동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온 더 무브 올리버 섹스 자서전, 올리버섹스, 알마, 2016.

[91]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

■ 작가소개

최은규: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음악학 석사 및 서양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단원을 거쳐 제1바이올린 부수석으로서 부천필의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회'에서 연주자와 해설가로 참여했다. 음악해설가로서 예술의 전당 음악아카데미와 강동아트센터 등의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다양한 음악회의 해설을 맡은 바 있다. 저서로는 '교향곡은 어떻게 클래식의 황제가 되었는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가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2가지'는 클래식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클래식 감상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악기구성, 클래식 용어, 작곡가와 그들의 명곡에 대한 이야기, 클래식에 담긴 신화 속 이야기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클래식 감상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소울메이트 출판사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클래식 감상의 즐거움을 극대화해줄 매력적인 클래식 입문서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의 감동은 가히 압도적이다. 하지만 당신이 느낀 그 감동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아는 만큼 보인다[知則爲眞看]."라는 말처럼 클래식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이다. 클래식 감상 전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알아둔다면 그 감동의 깊이는 더 깊고 진해질 것이다. 클래식 감상의 신세계를 향한 첫 발을 이 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오케스트라의 자리 배치와 악기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주가 끝난 후 지휘자는 왜 무대 뒤로 들어갔다 나왔을까?' 등 클래식을 감상하며 궁금했을 법한 부분들에 대해 저자는 전문성을 뽐내기보다는

친절하게 다가와 깊이 있는 클래식 이야기를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듯 조곤 조곤 알려준다. 저자와 대화를 나누듯 책장을 넘겨보자. 클래식 음악 감상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출판사 서평).

클래식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대 앞쪽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연주자 개인의 부담이 매우 큰 목관악기 연주자들,' '오케스트라의 자리 배치와 악기 편성,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오케스트라 리허설의 비밀,' '교향곡, 오케스트라를 돋보이게 하는 곡,' '협주곡, 조화와 경쟁의 독특한 묘미,' '카덴차, 오케스트라와 청중이 숨죽이는 순간,'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뒤늦게 인정받은 걸작,'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리듬의 혁명을 일으킨 문제작,' '미완성의 명곡들, 그래서 더욱 빛난다,' '수많은 음악 속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 등이 있다.

[예술치료학과 김동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교향곡은 어떻게 클래식의 황제가 되었는가, 최은규, 마티, 2008.

[92]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 작가소개

(1)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 킹스 칼리지런던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저자는 현대문학가로 2003년 프랑스 예술문화 훈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알랭 드 보통의 아름다움과 행복의 예술', '사랑의 기초',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일의 기쁨과 슬픔', '행복의 건축' 등이 있다.

(2) 존 암스트롱(John Armstrong): 1966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철학자이자 미술사로 현재 호주 멜버른 대학교 차관 상임고문으로 있다. 저서로는 '친숙한 예술철학', '사랑의 조건', '문명을 찾아서', '인생학교:돈' 등이 있다

(3) 역자 김한영: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예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였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고 대표적인 역서로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 '본성과 양육',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이 있다. 또한 제 45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번역부문을 수상하였다(교보문고).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알랭드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은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알랭드보통과 존 암스트롱은 예술작품 140여점과 예술의 기능, 해석, 연구, 전시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 안에서 사랑, 자연, 돈, 정치와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문학동네 출판사 제공]

■ 추천의 글

알랭 드 보통은 이 독특한 책을 통해 현대 미술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그에 따르면, 미술은 본질적으로 나약한 인간성을 보완해주고 보다 숭고한 가치를 향한 열망을 되살려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상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미술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미술작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향유하는 것은, 그 기능, 곧 위로와 치유가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춰 성찰하노라면, 우리는 우리가 미술을 즐기는 방식과 시스템, 시장, 나아가 사회까지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알랭 드 보통의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나아가 미술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서울미술관 관장 이주헌).

이 책은 기억, 희망, 슬픔, 균형회복, 자기이해, 성장, 감상 등과 같은 예술의 일곱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예술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훌륭한 예술로 간주하는 가?'와 같은 해석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또한, 사랑, 자연 등과 같은 예술작품에 담긴 인생의 주요 의미와 돈, 정치 등과 같은 예술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한다. 따라서 이 책은 예술작품들에 대한 단순한 소개보다는 예술작품과 인간의 삶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김동민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알랭 드 보통의 아름다움과 행복의 예술, 알랭 드 보통, 은행나무, 2015.

[93] 서양미술사

■ 작가소개

(1) 에른스트 고프리치(Ernst Hans Josef Gombrich)는 190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미술사학자였다. 그는 런던 대학의 와버그 연구소(Warburg Institute) 소장과 동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1944년 괴테상(Goeth Prize)과 비엔나 시가 수여하는 황금메달(Gold Medal of the City of Vienna)훈장을 받았으며, 1972년에는 나이트(Knight) 작위와 1988년 메리트 훈장(O.M.)을 받았다. 또한 그는 수많은 책들과 평론,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2) 역자 백승길은 The Korea Times사 기자를 거쳐 1961년-93년까지 유네스코 한위 출판부장, 문화, 홍보부장, 기획 실장을 역임하였고, 역자 이종승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서양미술사'는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 서양 미술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서술하였다. 각 시대의 양식과 인명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전문적인 책을 읽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는 학술적인 용어의 남용을 지양하여 평이한 언어들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왔다. 따라서 미술분야가 낯선 사람들도 서양미술사의 윤곽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아직 낯설지만 매혹적으로 보이는 미술이라는 분야에 처음 입문하여 약간의 이론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제 막 미술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참자에게 세부적인 것에 휘말려 혼돈됨이 없이 서양미술의 윤곽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까다롭고 복잡한 인명과 각 시대의 양식들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나중에 좀더 전문적인 책을 탐독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고프리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문 용어나 알팍한 감상의 나열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평생동안 미술책은 모두 비슷할 것이라는 식의 편견을 심어주는 악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그는 지나치게 평범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해한 사상들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적인 용어의 남용을 경계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출판사 서평).

'서양미술사'는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일상 언어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술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미술을 시대 순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기에 알맞은 입문서이며, 그 주요 내용은 '신비에 싸인 기원,' '아름다움의 세계,' '기로에 선 미술,' '동방의 미술,' '귀족과 시민,' '전통과 혁신,' '빛과 색채,' '이성의 시대,' '실험적 미술' 등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곰브리치 세계사 편력, 에른스트 곰브리치, 간디서원, 2015.

[94]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 작가소개

임석재: 196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프랑스 계몽주의 건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건축을 소재로 한 저서 48권을 출간하였다. 연구, 집필 및 실제 설계를 통한 작품 활동도 하고 있는 건축사학자이자 건축가이다. 저서로는 '서울 건축', '생태건축', '예로지은 경복궁', '유럽의 주택', '현대 건축의 지평'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책 소개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은 한옥에 사용되는 과학적인 원리들을 소개하며 한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옥의 불편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한옥의 불편함이 가지는 과학적인 미학과 장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집의 존재이유, 의미와 가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한 근본을 지킨 한옥에 대해 설명하며 한옥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삶이 피곤하고 힘든 현대인들이 한옥을 그리워하는 이유와 한옥의 아름다움, 그 안에 담긴 한국다운 지혜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한옥은 가장 한국다운 집이자 '한국다움'이라는 근원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구현한 건물이다." 사람들이 한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한옥의 창이 나타내는 가족 관계 가운데 으뜸은 친자의 정이다. 크고 작은 두 창이 함께 있을 때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크기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지만 너무 심해도 안 된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 모양과 형태도 너무 다르면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해당되는 조건들이다. 판박이로 닮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출판사서평).

'과학적인 집 - 해가 잘드는 집, 바람이 잘 통하는 집,' '신기한 집 - 놀이와 소통의 기능,' '감각적인 집 : 촉각과 시각의 미학 - 온돌, 창호지, 빛과 그림자,' '포근한 집 : 창호지와 휴먼 스케일,' '화목한 집 : 어울림의 미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양식 집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한옥의 고유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학적, 문화적 지혜를 전수해 준다.

[예술치료학과 김동민 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 현대 건축의 지평, 임석재, 인물과 사상사, 2013.

[95]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 작가소개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스위스 바젤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바젤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이길이 아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1839년 당시, 역사학 분야의 명성을 떨치던 랑케를 찾아가 베를린 대학으로 적을 옮긴다. 1843년까지 랑케, 드로이젠, 쿠골러, 그림, 뵘 등에게서 역사학, 예술학, 문헌학, 고전학 수업을 듣는다.

1843년 박사학위를 받고, 1844년 1444년 아르마냐크 원정 시기의 프랑스 상황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강연하여 교수 자격을 취득한다.

1852년 최초의 역작 『콘스탄티누스 대제시대』를 쓰고, 1855년 『여행 안내서:이탈리아 예술작품의 감상을 위한 안내서』를 발표하는데, 이 책을 근거로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의 예술사 교수로 초빙된다.

1858년 바젤 대학 역사학 정교수가 되어 돌아온 후로는 1893년 퇴임 할 때까지 이곳에서 강의 생활을 충실히 한다.

■ 책 소개

중세 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인들이 영위해온 정치, 종교,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는 삶이 기술되어 있는 이 책은 중세에서 벗어나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모든 분야에 걸친 역사의 바람을 마주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두말이 필요없는 명저 중의 명저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두어 권의 번역서가 출간된 적이 있을 만큼 친숙한 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번역서는, 하나는 일본어판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몇몇 군데에 심각한 오역이 그대로 있다는 점 등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어 눈 밝은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한길사에서 펴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독자들이 신뢰감을 갖고 명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공들인 번역작업을

하여 내놓은 결실이다. 옮긴이 이기숙은 독일어학 전공자로 매끄러운 번역이 되도록 5년여에 이르는 긴 시간에 한글문장을 다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국내 유일의 부르크하르트 전공자인 최성철은 이 책 전체 내용과 세부 개념들을 낱낱이 점검하는 치밀한 감수를 함으로써 한국어판 정본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부르크하르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왜곡되지 않은 거울을 갖게 된 셈이다.

[출처: 출판사 한길사 서평]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메디치 가문 이야기, G.F.영, 현대지성, 2017.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슈테판 츠바이크, 안인희, 2009.

[96] 한국 미술의 역사

■ 작가소개

안휘준: 현(現)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문학사)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문학석사, 철학박사)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수학하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홍익대학교 박물관장을 거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예술연구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정년퇴직 한 뒤에는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밖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학회 및 사회활동을 하였다. 우현상, 동원학술대상, 한국미술저작상, 보관문화훈장,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여받아 한국미술사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책 소개

발칙한 상상으로 가득한 17가지 수학『수학 시트콤』. 일상이 녹아 있는 작은 이야기를 독일인 특유의 감수성으로 그려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수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 비례식 등의 초등학교 수학부터 미분 등의 고등학교 수학까지 수학의 전 분야, 즉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를 망라하여, 유머러스한 일화로 다루고 있다. 드라마 같은 설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이끌어내 수학을 이해하기 힘든 공식의 집합이 아닌 맥락과 상황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추천의 글

서양미술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잰슨 또는 고프리히가 쓴 『서양미술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책들은 그 자체로도 서양미술사의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본격적이고 깊이 있는 분야로도 이끌어주는 멋진 입문서들이다. 한국의 전통미술에 관해

서도 이런 정통 개설서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고고학과 미술사의 전문야를 아우르는 학문적 스펙트럼을 지닌 저자가 아니고는 집필할 수 없는 것이 한국전통미술 개론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과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각 분야가 몹시 세분화된 지금의 학계에서 『한국미술의 역사』처럼 종합적인 개설서가 나오려면 아마 각 파트별로 나눠 여러 명의 전문가가 모여 공동 집필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청잣빛 바탕색에 위에 고운 청화백자를 엮은 소탈한 재킷을 씌운 『한국미술의 역사』는 당분간 전통미술에 입문하려는 독자들을 위해 충실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다. 책 속에 소개된 작품 하나하나가 각각 개성적이고 독특하고 아름답고 인상적이며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미술의 역사』 그 자체가 전통문화와 예술의 보고가 아닐까.

한국의 문화교양인이라면 누구나 한 권쯤 가까이 두고 읽어야할 책이 바로 『한국미술의 역사』다.

[출처: 출판사 시공아트 서평]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서양미술사, E.H.곰브리지, 예경, 2003.

[97] 한눈에 보는 조각사

■ 작가소개

김석: 1963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예수의 전당이 선정한 '올해의 젊은 작가상', 2001년 제12회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교수이다.

■ 책 소개

이 책은 조각을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큰 줄기로 하여 8개의 단원, 90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고대부터 20세기 말의 대표적인 작가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술되어 있고, 그 속에 중요한 양식의 성립과 특징도 언급하고 있다. 작가가 지니고 있는 우연적, 필연적 배경과 작품 제작 의도 및 작품 안에 숨겨진 의미해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림, 어바웃어북, 2013.

그림 속 세계사, 릴리스(김순애), 지식서재, 2020.

[98]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작가소개

아르놀트 하우저: 헝가리 태생의 맑스주의 예술사학자. 1892년 테메슈바르(현 루마니아 티미쇼아라)에서 태어나 부다페스트와 빠리에서 게르만어·로망스어 및 철학을 공부했다. 부다페스트 '일요씨클'에 참여해 카를 만하임, 죄르지 루카치 등과 교류했으며, 독일 낭만주의 미학 연구로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잠시 교수로 일했다. 1919년 소비에트 정권에 맞선 헝가리 반혁명이 일어나자 이탈리아로 건너가 예술사를 공부했다. 이후 베를린에 머물며 문학과 예술에 관한 사회경제사의 관점을 진전시켰다. 나치가 득세하면서 빈 영화계로 자리를 옮겨 저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1938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했다. 리즈 대학의 전임강사로 일한 뒤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초청으로 프랑크푸르트와 독일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미국 브랜디스 대학과 오하이오 대학에도 머물렀다. 1978년 타계하기 전 부다페스트로 귀향해 헝가리 학술원 명예회원이 되었다. 지은 책으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비롯해 『예술사의 철학』 『매너리즘: 르네상스의 위기와 근대예술의 기원』 『예술사회학』 『루카치와의 대화』 등이 있다.

■ 책 소개

헝가리 태생으로 20세기를 빛낸 지성, 아르놀트 하우저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대중영화의 시대까지, 인간과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예술이 시대와 사회관계 속에 빛어진 산물이라는 '예술사회학'의 관점을 선구적으로 펼친 이 책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1951년 영문판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지 20여개 언어로 번역되며 '새로운 예술사'로서 전세계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올해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지 만 50년이 되는 해다. 1966년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를 통해 책의 마지막 장인 '영화의 시대'가 번역됐고, 이후 1974년 '창비신서' 1번으로 현대편(지금의 제4권에 해당)이 출간되며 한국 지성계에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개정판은 1999년 개정판에 이은 두번째 개정판이다. 이 책의 새로운 독자들, 이제 막 예술과 사회에 발 디디려 하는 독자들은 물론, 그동안 이 책을 읽으며 예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온 오랜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려 한

결과물이다. 총 500점에 달하는 컬러도판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텍스트를 더 쉽고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이 단지 문학과 예술인 사이에서 갖고 있는 권위 정도로만 말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이 책이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 던진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생각한다면 가히 20세기 지식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손꼽힐 만한 것이다. 더욱이 이 책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서구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사물을 어떻게 파악하고,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실감나게 알려주었으니 어느 모로 보나 우리 시대의 고전인 것이다.

[유홍준 (미술사학자, 명지대 석좌교수)]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2019.

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 월북, 2019.

[99] 대중음악의 이해

■ 작가소개

민은기: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음악 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프랑스 음악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이론 연구와 후학 양성에 집중해왔다. 프랑스혁명, 바로크 오페라 등의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술과 번역에도 힘써 한국에서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책을 가장 많이 낸 음악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등 여러 매체에 음악과 관련된 글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기도 하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다섯 살부터 내내 숨 쉬듯 곁에 음악을 두고 살아왔다.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자 한국의 1세대 음악학자로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 책 소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말춤으로 들썩였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순식간에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넘어섰으며, 빌보드 차트에서는 7주 연속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특히 K-POP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요즘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그저 소비하고 향유하는 데 그칠 뿐 학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대중음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대중음악에 대해 이해하거나 학습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말처럼) 자신의 취향을 확립하지 못한 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호구 고객'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대중음악 연구 역시 보다 큰 대중문화 연구의 일부로서, 여러 인문과학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직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학문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중음악 연구는 주로 경제, 산업, 수용자, 테크놀로지, 세대, 젠더 등 주변적 담론 안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이 책은 기존의 대중음악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중음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대중음악에 대한 모든 논의를 리듬과 사운드, 스타일, 사운드의 내적 관계, 음악적인 기법과 표현 등의 음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대중음악이 초래한 영향이나 현상을 논하기 전에 시대별로

다양하게 등장한 대중음악의 소리나 스타일을 음악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이 책은 팝음악, 블루스, 컨트리, 재즈, 뮤지컬, 댄스음악, 월드뮤직 등 총 12개의 장르별로 나누어 대중음악의 개념과 특성, 역사적 흐름 등을 다루고 있다. 대중음악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팝음악부터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 등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 대중음악에서의 장르란, 실제로는 그 경계가 모호하며 장르와 장르가 만나 혼종을 낳고 하위 장르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장르의 구분을 따라 책을 구성한 것은 대중음악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음악의 주요 개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표적인 대중음악 작품 42곡을 위한 감상 가이드를 수록하고 있으며, 악보, 사료, 아티스트 등의 여러 자료들을 올 컬러로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와준다.

[출처: 출판사 음악세계 서평]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김도훈 작곡법, 김도훈, 1458music, 2018.

이 한 줄의 가사, 이주엽, 열린책들, 2020.

[100]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 작가소개

이성재: 1973년 경희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배재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을 거쳐 지금은 당곡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1976년부터 약 5년 동안 국립국악원 연주원이며 인간문화재인 이동규 선생에게 가곡을 사사했다.

국악의 현대화 작업에도 힘써 1979년부터 지금까지 국악찬송가 40여 곡을 작곡했다.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대만 문화대학과 일본에서 중국 비파, 양금, 샤쯔마 비파, 인도 악기 시타르 등의 연주와 이론을 공부했다. 1989년에는 MBC가 아시아 방송제에 출품한 '풍물굿'으로 작곡상을 수상했다.

■ 책 소개

이 책은 학교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 음악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어떤 문외한이라도 우리 음악이 어떤 재미와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 위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한다. [출처 : 인터넷 YES24 제공]

■ 추천의 글

지루하다, 어렵다, 졸리다..... '국악' 하면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국악은 하나의 단어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고 그 갈래마다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 제각기 다르다. 이 책은 그렇듯 광활한 국악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물론 책 한 권에 그 다채로운 세계를 오롯이 담아내기는 힘들며, 무엇보다 음악은 귀로 듣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악 책들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거나 애호가들만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국악이 어떠한 음악인지 막연하기만 한 독자들을 배려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개론서다. 하지만 다이제스트식의 요약본이 아니다. 다양하고 섬세한 우리 음악의 '결'을 가능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국악의 요모조모를 넓지만 깊게 담아내고자 했다. 우리 음악의 세계를 한 겹 한 겹 꼼꼼히 살펴주는 친절한 국악책,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보자. [출처: 출판사 서해문집 리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똑같은 빨강은 없다, 김경서, 창비, 2018.